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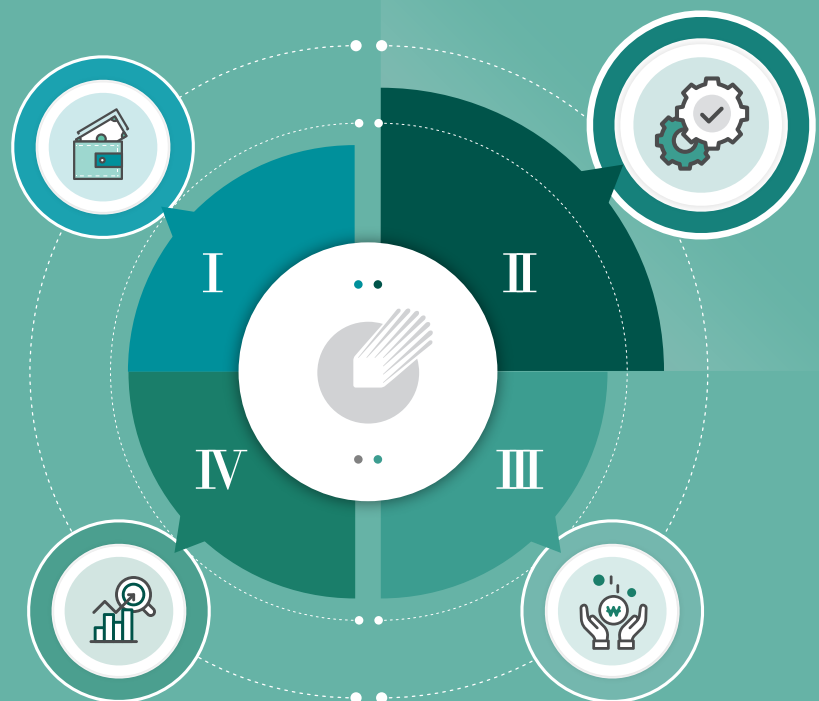
2023.3.31.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3 경제전망 II

2023 Economic Outlook II

[생산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경제전망 Ⅱ

- 생산 부문 -

2023 경제전망 II

- 생산 부문 -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정원철 경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작성 |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지원 | 김남희 행정실무원
유기환 자료분석연구원

「2023 경제전망」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을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경제전망 II

- 생산 부문 -

2023. 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3.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2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어 가동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생산능력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세계교역량 위축 등 하방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정책은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발의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친환경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등 경제 환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Ⅱ권 「생산 부문」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를 전망하였습니다.

2023년 총부가가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7%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2.1%)보다 낮게 조정된 것입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등이 예상되어 큰 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10월 전망과는 달리 일부 업종에서의 생산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건설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 해소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 서비스업 전망치의 상향 조정되는 등에 따라 소폭 상승 조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3년 생산 부문별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4.1	3.0	2.2	2.6	1.2	1.8	1.5
총부가가치	4.3	3.4	2.6	3.0	1.4	2.0	1.7
제조업	6.9	3.0	-0.2	1.4	-2.3	1.3	-0.5
서비스업	3.8	4.2	4.1	4.2	3.0	2.6	2.8
건설업	-2.6	-1.4	1.7	0.3	0.1	-0.2	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0	2.2	1.6	1.9	1.9	2.6	2.2
기타 ¹⁾	3.7	0.1	-2.7	-1.5	-2.2	1.8	0.0
순생산물세	3.1	-2.0	-2.0	-2.0	-1.6	-1.1	-1.3

주: 1) 농림어업 및 광업

자료: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실적치는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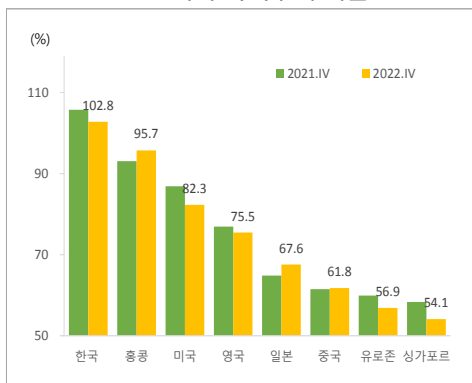
I. 국내외 산업 여건

1. 경제 여건

□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 위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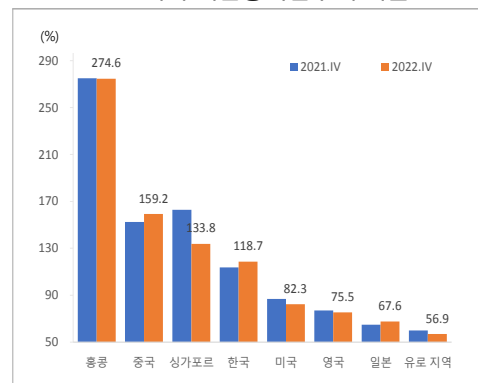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
- 주요 국제기구 및 기관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2022년 → 2023년) : IMF(3.4% → 2.9%), 세계은행(2.9% → 1.7%), OECD(3.2% → 2.6%)
-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1년에 비해 아직 높음
- 금리상승 추세와 폭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황을 어렵게 하고,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시,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이 102.8%로 조사대상 35개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
 - 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118.7%로, 홍콩(274.6%), 중국(159.2%), 싱가포르(133.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GDP대비 비금융기업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 세계 무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22년 9월까지 평균 5~6%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감소로 전환
 - 세계무역기구(WTO)는 2023년 세계 교역량이 2022년 3.4%보다 축소된 1%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CLI)를 살펴보면, 세계교역량 축소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국내 경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수출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세

-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1.3%로 낮아짐
- 소비심리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와 성장둔화가 겹치면서 위축
 - 2023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0.2로 1월보다 0.5p 하락 (한국은행)
-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경제 및 IT 경기의 회복 등으로 경제 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부진한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의 감소 등의 하방 요인이 존재
 -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확대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리스크 확대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 증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침체, SOC예산 감소 등의 하방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수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으며 수입도 동기간 중 증가 폭이 둔화
 -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세계 경기둔화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어 이후 부진
 -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전년대비 18.9% 증가한 7,321억 달러를 기록
 - 무역수지는 2008년 133억 달러 적자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2022년에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



2. 산업 여건

가. 글로벌 통상환경

□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와 무역안보론으로 인한 초양극화시대 도래

-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 할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
- 미-중 갈등이 WTO 체제하의 기존 공급망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인 초양극화(The Great Divide)를 초래하면서 경제안보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무역·투자 제재 및 수출입통제 조치를 시행
 - 중국도 '중국 제조 2025'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
 - 이에 EU도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등을 통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선회
-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한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쏠림이 있음
 - 2022년 기준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

□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
 - 미국 바이든 정부는 UN 기후 체제 공식 복귀 후 IRA에 포함된 조치들을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EU는 최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추진을 선언하고 2023년 10월에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시범 시행
- 글로벌 통상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나. 원자재 수급

□ 2023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확대, 이상기후, 식량 및 자원안보 의식 강화 등으로 2022년 1~3분기 동안 원유,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급등
- 그러나 2022년 하반기들어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폭이 축소
- 2023년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친환경 인프라 관련 원자재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보일 전망

□ 원자재 가격상승은 생산비용 상승을 압박해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침

- 원유, 원자재,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 총지수가 2022년 6월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하였다가, 2023년 1월 5.1%로 상승 폭 축소
 - 단, 제품에 따라 생산자물가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2022년 3분기 5.0%로 전기대비 2.3%p 낮아져 예년의 평균 수준($\pm 0.5\%$)에 비해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3.9%p), 제조업(-2.8%p), 건설업(-1.6%p), 서비스업(-0.5%p) 등의 순
 - 제조업의 경우 석유화학(-5.0%p), 금속제품(-4.8%p), 기계·전기·전자제품(-2.2%p) 등의 순
-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2023년에 인상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

다. 금리 변동

□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외 경기둔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기준금리가 인상됨



-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2020년 5월 0.5%에서 2023년 1월 3.5%으로 3.0%p 인상됨에 따라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22년 12월 5.7%, 비은행권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10.6%까지 인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의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금리인상은 소비부진과 설비투자 위축 등을 초래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감소시키고 이자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기업의 대출금은 2022년 3분기 기준 1,789조원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46.5% 증가
 -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은 동기간 32.9% 증가하였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92.3% 증가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2022년 1분기 7.2배, 2분기 7.8배에서 3분기 4.9배로 감소
 - 제조업의 경우 금속제품,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고, 운송장비는 3분기 기준 1.7배로 낮은 수준
 -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업, 전문과학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으며,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분기 1.6배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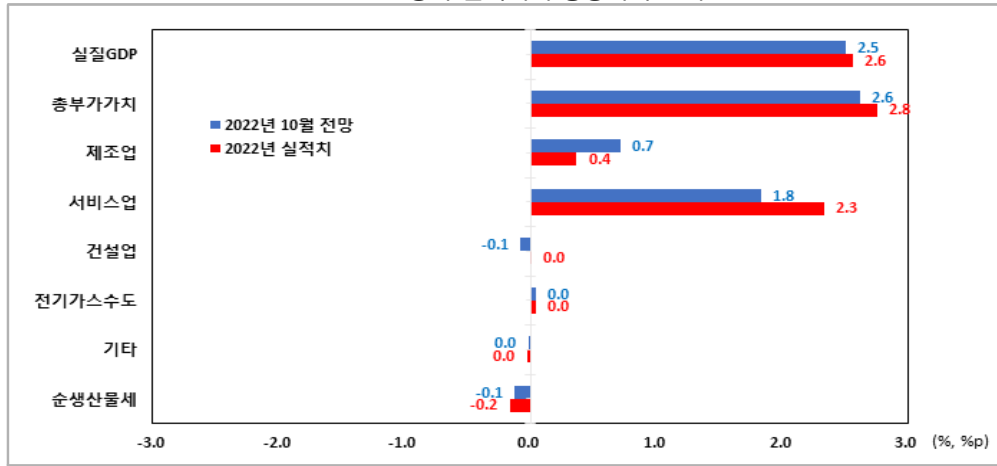
II. 생산 부문별 전망

1.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2년 총부가가치 실적치(3.0%)와 NABO 전망치(2.9%)와의 차이는 0.1%p

- 제조업(1.4%)은 주력 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재고 누적으로 생산이 동반 감소하며 전망치(2.7%)보다 낮아 상방차이(1.3%p) 발생
- 서비스업(4.1%)은 2022년 4분기 이후 성장이 제약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며 전망치(3.3%)보다 높아 하방차이(-0.8%p) 발생
- 건설업(-1.9%p)은 기존 투자에 대한 준공 증가, 전기·가스·수도업(-0.4%p)은 2022년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하방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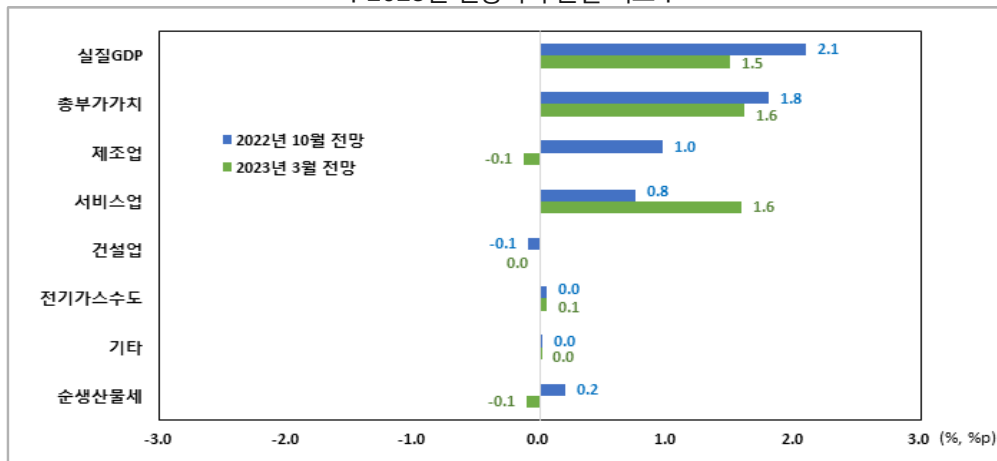
Ⅰ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성장기여도 비교 Ⅰ



□ 2023년 총부가가치 성장률은 2022년 10월 중기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

- 제조업은 세계 교역량 축소,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
- 서비스업은 상반기 중 대면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 꾸준한 증가세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2022년 10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Ⅱ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Ⅱ





2. 제조업

□ 2023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될 전망

- 2023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와 반도체 등 IT산업의 '코로나 특수' 종료에 따른 수출 감소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제조업 생산능력 저하와 가동률 하락 등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2년(1.4%)보다 1.9%p 낮은 성장률(-0.5%)을 나타낼 전망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회복 가능성, 공급망 불안 일부 완화,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 경제 침체와 교역량 위축,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강력한 긴축정책,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과 재고 증가, 제조업 생산능력 저하와 가동률 하락,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등 하방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
-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3%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1.3% 증가할 전망

3. 서비스업

□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전망

-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꾸준한 생산 증가가 유지되어 2022년(4.2%)보다 1.4%p 낮은 2.8% 증가할 전망
 -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 지속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 등은 내수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3년 상반기에는 팬트업 소비가 작년에 이어 유지되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하방효과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할 전망

4. 건설업

□ 2023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3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미분양 물건 누적으로 인한 건설투자 하락 및 유동성 문제 등 공급측 요인, 주택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상에 따른 부동산 수요 하락 등 수요측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2022년(0.3% 증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공급망 불안정의 일부 해소로 건설자재 가격의 안정화, 투입 요소 공급 교란의 해소,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 완화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 공급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미분양 물건 누적으로 인한 건설투자 하락과 유동성 문제 등과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수요 하락은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3년 상반기에는 2022년 상반기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하방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0.2% 감소할 전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증가할 전망

-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상반기 중 제조업 부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율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와 대중국 수출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2022년(1.9%)에 비해 0.3%p 높은 2.2% 증가할 전망
 -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및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으로 하반기 산업 부문의 수요 증가가 상방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 화학 산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에 따른 상반기 제조업 생산의 감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 둔화,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와 가스의 소비량 감소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제조업 생산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율 둔화에도 대중국 수출 회복 가능성 증가에 따라 2.6% 증가할 전망

Ⅲ. 주력 산업 국제 비교

□ 주요 11대 산업 중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4개 산업을 선택

- 2023년 1월 기준 통계청의 제조업 생산 가중치(10,000)는 반도체(2,023.8), 자동차(987.5), 화학(854.2), 1차금속(662.2), 석유정제(192.4) 순
- 2023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차(14.5%), 반도체(13.0%), 석유(10.2%), 화학(8.2%), 철강(6.1%) 순
- 석유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수출금액이 철강보다는 많은 수준이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철강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아 철강을 선택
 - 생산동향은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수출동향은 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사용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음

□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감소

-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4.1% 감소로 전환될 전망(WSTS, 2022.11.29.)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시장 규모가 2022년 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반도체 시장의 부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2022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IT 조사업체인 Gartner(2022.11.28.)도 세계반도체 시장이 2022년 4.0% 성장한 뒤 2023년에는 3.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PC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주도 시장과 기업 주도 시장으로 양극화
- 소비자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가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3년 집적회로(IC)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메모리 반도체가 17.0% 감소하며,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을 주도할 전망
 - 우리나라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58%로, 2023년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추격 등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21년 3%로,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낮은 상황

□ 202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증가 반등할 전망

- 2023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4.7% 증가로 전환될 전망 (한국자동차연구원, 2022.11.21.)
 -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세계경기 둔화, 지속되는 공급망 문제는 세계 자동차 수요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 지연수요(delayed demand), 중국과 여타 국가의 경기 회복은 세계 자동차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EIU)
 - 2023년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각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전기자동차 수요의 증가세에는 전기자동차 운용 기반시설의 준비가 중요한 결정요인
 - 연료공급, 운행거리에 대한 우려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



□ 2023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

-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2023년 약 5.2조 달러로 전년대비 4.0% 감소할 전망
 -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전방산업의 부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및 미달러 강세,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급증했던 비대면, 헬스케어, ICT 관련 중간재 수요의 감소,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2021~2022년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
- 다만, 2023년 유가가 전년에 비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세계 석유 수요와 OPEC+ 감산 규모가 예측치보다 많을 경우, 유가 상승으로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
- 국가별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43.0%로 가장 높고, 유로 지역 14.7%, 미국 10.9%, 중국 외 아시아 국가 10.5%, 일본 4.7%, 한국 3.3% 순

□ 2023년 세계 철강 수요는 2022년 대비 소폭 증가

- 2023년 세계 철강 수요는 2022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한국철강협회, 2023.1.)
 - 한국(0.0%)과 중국(0.0%)의 철강 수요는 2022년 수준을 유지, 미국(1.6%)과 일본은 자동차 부문의 공급망 제약 완화로 인해 증가, EU(-1.3%)는 산업 활동 둔화로 위축될 전망
 - 인도(6.7%)·아세안(6.0%) 등의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인프라 투자 수요에 따라 6%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조강생산 능력은 18억 2,000만톤으로 전년대비 1.4% 감소 (World Steel Data, 2022.11.)
 - 한국의 조강생산량은 6,600만 톤 내외로 전망 (한국철강협회, 2023.1.)
-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는 감소하나 조선 부문의 철강 수요는 증가



[제 I 부 국내외 산업 여건]

제1장 경제 여건 / 3

제1절 대외 여건	3
제2절 대내 여건	8

제2장 산업 여건 / 10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	10
제2절 원자재 수급 동향	14
제3절 금리 변동	25

[제 II 부 생산 부문별 전망]

제1장 2023년 전망의 수정 요인 / 35

제1절 2022년 전망 차이 및 요인	35
제2절 2023년 수정 전망 요인	37

제2장 제조업 / 39

제1절 2023년 전망	39
제2절 제조업 관련 정책 검토	51

제3장 서비스업 / 54

제1절 2023년 전망	54
제2절 서비스업 관련 정책 검토	59

제4장 건설업 / 61

제1절 2023년 전망	61
제2절 건설업 관련 정책 검토	64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66

제1절 2023년 전망	66
제2절 전기·가스·수도사업 관련 정책 검토	72

[제Ⅲ부 주력 산업 국제 비교]

제1장 반도체 / 79

제2장 자동차 / 83

제3장 화학 / 86

제4장 철강 / 91



[제Ⅰ부]

표 I-1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4
표 I-2	에너지 가격 동향	15
표 I-3	비철금속가격 동향	16
표 I-4	주요 곡물가격지수 동향	17

[제Ⅱ부]

표 II-1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비교	36
표 II-2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38
표 II-3	가공단계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42
표 II-4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46
표 II-5	부처별 수출 수주 목표	52
표 II-6	서비스업 산업 부가가치 비중	58
표 II-7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63
표 II-8	건설시장 안정 주요 대책	65
표 II-9	주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	73

[제Ⅲ부]

표 III-1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80
표 III-2	세계 반도체 집적회로(IC) 분야 시장 전망	81
표 III-3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과 전망	85
표 III-4	글로벌 철강 수요	92
표 III-5	조강 생산 전망	92

[제 I 부]

그림 I-1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4
그림 I-2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5
그림 I-3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6
그림 I-4	GDP대비 비금융기업부채 비율	6
그림 I-5	세계교역량	7
그림 I-6	G20 경기선행지수	7
그림 I-7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
그림 I-8	소비자심리지수	8
그림 I-9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9
그림 I-10	우리나라 교역액 중 상위 5개국의 비중 추이	12
그림 I-11	에너지 가격 추이	15
그림 I-12	비철금속가격지수 추이	16
그림 I-13	주요 곡물가격지수 추이	17
그림 I-14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	18
그림 I-15	원유 수입 추이	18
그림 I-16	천연가스 수입 추이	19
그림 I-17	석탄 수입 추이	19
그림 I-18	주요 비철금속 수입 추이	20
그림 I-19	알루미늄 수입 추이	20
그림 I-20	구리 수입 추이	20
그림 I-21	니켈 수입 추이	20
그림 I-22	아연 수입 추이	20
그림 I-23	철광석 수입 추이	20
그림 I-24	주요 농수산물 수입 추이	21
그림 I-25	옥수수 수입 추이	21
그림 I-26	대두 수입 추이	22
그림 I-27	소맥 수입 추이	22



그림 I-28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23
그림 I-29	공산품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23
그림 I-30	업종별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변동분 추이	24
그림 I-31	제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변동분 추이	24
그림 I-32	기준금리 추이	26
그림 I-33	금융권의 기업 대출금리 추이	26
그림 I-34	산업별 취급기관별 대출금 추이	27
그림 I-35	주요 서비스업 업종별 대출금 추이	27
그림 I-36	매출액증감률 추이	27
그림 I-37	매출액증감률 변동폭 추이	27
그림 I-38	이자보상배율 추이	28
그림 I-39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추이	28
그림 I-40	제조업 이자보상배율 추이	28
그림 I-41	서비스업 이자보상배율 추이	29
그림 I-42	제조업의 한계기업 추이	30
그림 I-43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추이	30

[제II부]

그림 II-1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성장기여도 비교	37
그림 II-2	2023년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38
그림 II-3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40
그림 II-4	제조업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추이	41
그림 II-5	대중국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41
그림 II-6	분기별 제조업 생산	43
그림 II-7	월별 제조업 생산	43
그림 II-8	분기별 출하 및 재고	44
그림 II-9	월별 출하 및 재고	44

그림 차례

그림 II-10 분기별 내수 및 수출 출하	44
그림 II-11 월별 내수 및 수출 출하	44
그림 II-12 제조업 재고율 및 증감률	45
그림 II-13 분기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46
그림 II-14 월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46
그림 II-15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47
그림 II-16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55
그림 II-17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55
그림 II-18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추이	56
그림 II-19 한국 기준금리 추이	56
그림 II-20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58
그림 II-21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59
그림 II-22 서비스산업발전 TF의 구성	60
그림 II-23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63
그림 II-24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 추이	64
그림 II-25 공종별 신규수주 실적지수 추이	64
그림 II-26 전기·가스·수도사업 추이	67
그림 II-27 전기·가스·수도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67
그림 II-28 용도별 전력판매량	67
그림 II-29 천연가스 소비 추이	68
그림 II-30 도시가스 최종소비 추이	68
그림 II-31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현황	69
그림 II-32 환경산업의 매출액 현황	69
그림 II-33 전기·가스·수도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	70
그림 II-34 메모리 반도체 단가 추이	71
그림 II-35 에너지원별 발전량 구성 비중	71
그림 II-36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74
그림 II-37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 추이	74



[제III부]

그림 III-1 다음 구매 자동차의 동력기관 선호 비중	84
그림 III-2 주로 활용할 충전 지점	85
그림 III-3 화학산업의 가치사슬 현황	86
그림 III-4 세계 화학시장 규모	87
그림 III-5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	88

2023 경제전망 II

생산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국내외 산업 여건

제1장 경제 여건

제2장 산업 여건

제1장 경제 여건

-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 위축 확대**
 - 주요 국제기구 및 기관은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을 예상
 -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1년에 비해 아직 높음
 - 금리상승은 기업, 가계의 부채 부담을 높이며 저소득국가·신흥국에 더 큰 부담
 - 세계 무역량은 2022년 9월까지 증가세였으나 최근 감소세로 전환
-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세 지속**
 - 국내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1.3%로 낮아짐
 - 한국은행의 2023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0.2로 1월보다 0.5p 하락

제1절 대외 여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로부터 복원(resilience)되지 못한 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둔화와 무역 갈등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도 소비와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기관별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하면, IMF는 2023년 2.9%로 2022년 3.4%에 비하여 0.5%p 낮아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2.9%에서 1.7%로 1.2%p 낮아질 것으로, OECD는 3.2%에서 2.6%로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는 2023년에 선진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4.6%)과 경기 위축(2022년 2.7%→ 2023년 1.2%)이 예상되지만, 개도국은 개방에 따른 중국경제 재개와 그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23년 성장률이 소폭 개선(2022년 3.9%→2023년 4.0%)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계은행은 다른 기관들보다 세계경제의 경기위축 폭(2022년 2.9%→ 2023년 1.7%)이 더욱 가파르고, 특히 선진국의 경기위축 폭(2.0%p)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2년 크게 확대되었던 상승압력이 2023년에 다소 누그러지긴 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3년 1월 전망에서 IMF는 2023년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에 비해 2.2%p 낮은 6.6%가 될 것을 예상하였고,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022년 7.3%에서 2023년 4.6%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을 예상하였다. OECD는 2023년 3월 전망에서 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9.4%에서 2023년 6.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취약한(Fragile) 상태에 있으며 상·하방 리스크는 최근 균형된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하방 위험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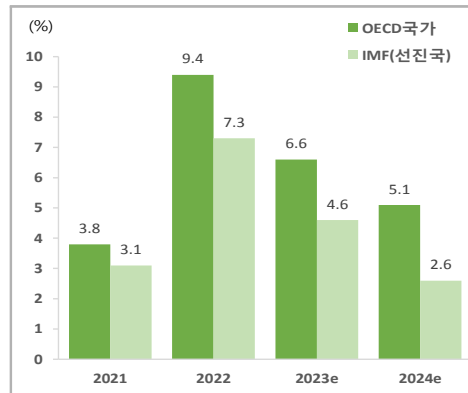
높은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을 유도하고,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며, 자본유출 위험을 증대시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교역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표 I-1 |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시점	2022	2023f	2024f
IMF	23.1월	3.4	2.9	3.1
(선진국)		2.7	1.2	1.4
(신흥국)		3.9	4.0	4.2
World Bank	23.1월	2.9	1.7	2.7
(선진국)		2.5	0.5	1.6
(신흥국)		3.4	3.4	4.1
OECD	23.3월	3.2	2.6	2.9
Global Insight	23.1월	3.0	2.0	2.9
6개 IB 평균	23.1월	3.2	2.4	2.7

주: 6개 IB는 Barclays, JP Morgan, Goldman Sachs, Citi, Morgan Stanley, Bank of America
자료: 각 기관

그림 I-1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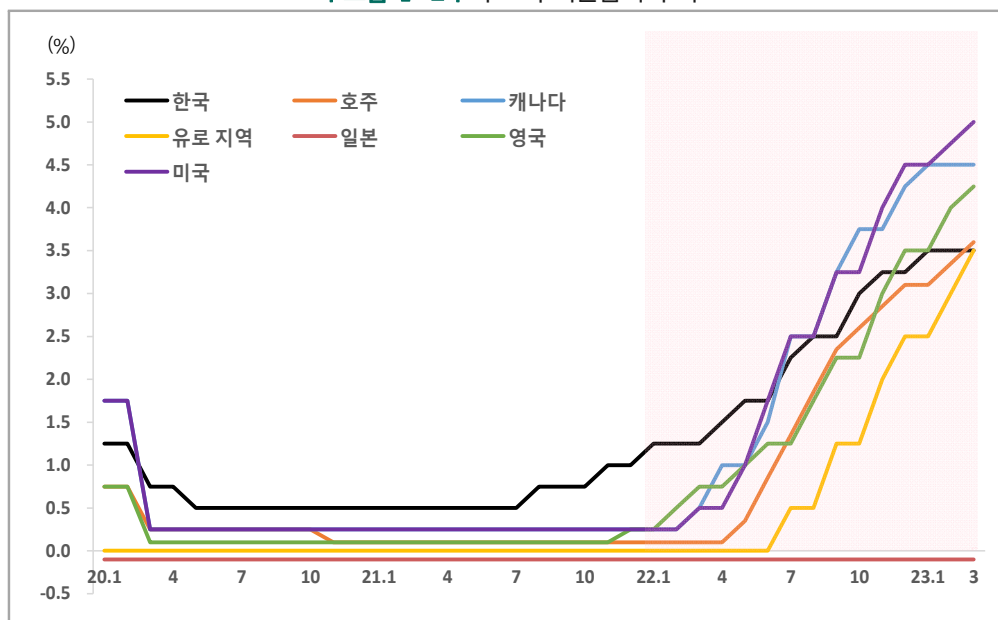


자료: IMF(2023), OECD(2023)

1)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forecast.htm>

2022년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기준금리를 빠르고 크게 인상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고 수요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산업생산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운임·임금 등의 생산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물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번 연속 인상되어 현재 5.0%(0.25%에서 4.75%p 상승)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도 2021년 12월 0.1%이었던 금리를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인상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25%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설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었지만 인플레이션 진화를 더욱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를 0.5% 인상하여 3.5%의 기준금리를 결정하였다. 이런 금리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긴축효과가 있지만, 자금조달 비용상승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Ⅰ 그림 I-2 |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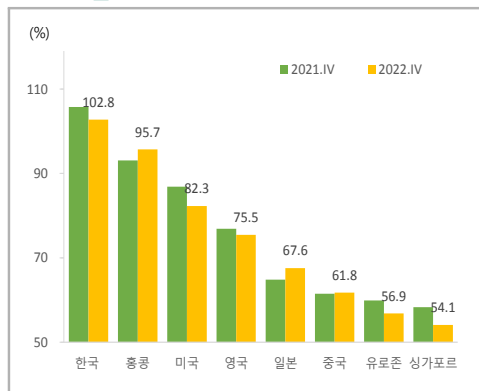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2022년 1분기 이후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로 나타나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금리상승 추세 및 금리상승 폭은 기업, 정부, 가계의 부채 상황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2년 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102.8%로 조사대상 35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2분기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어 홍콩(95.7%), 미국(82.3%), 영국(75.5%), 일본(67.6%), 중국(61.8%), 유로존(56.9%) 및 싱가포르(54.1%)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대상 국가 중 국내총생산 규모를 초과한 가계부채를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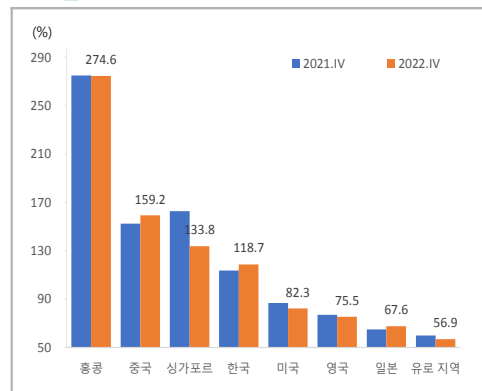
기업의 GDP대비 대비 부채비율도 한국이 상위권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118.7%로, 홍콩(274.6%), 중국(159.2%), 싱가포르(133.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21년 4분기 수치(113.7%)와 비교해 5%p 증가한 것이다.

그림 I-3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그림 I-4 GDP대비 비금융기업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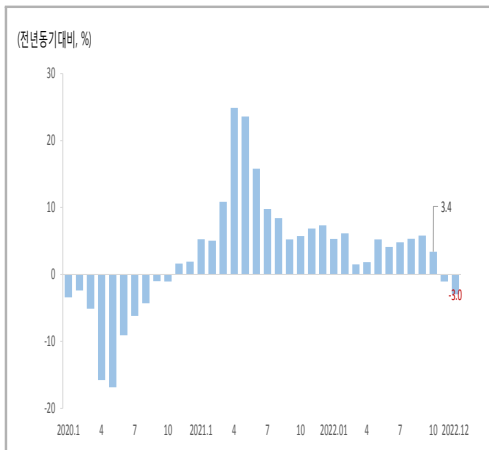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세계 무역량은 2022년 9월까지 평균 5~6%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인한 수입수요 위축,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 차질 등의 심화로 인해 2022년 10월 3.4%로 둔화되었고 11월에 전년 대비 -1.0%, 12월에 -3.0%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었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전망²⁾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교역증가량이 1%대로 전망되어 2022년 3.4%보다 낮아졌다. 전망의 하방요인으로는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정책 기조, 보호무역정책 등으로 인한 주요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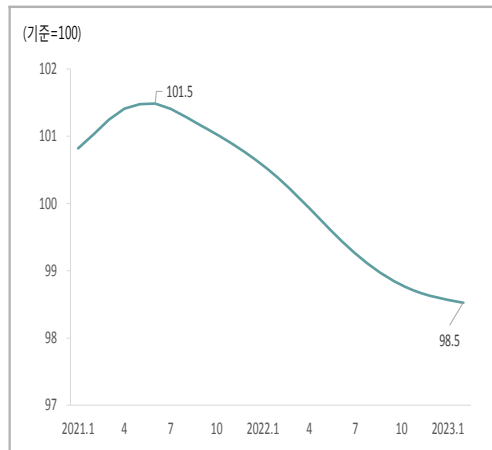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세계교역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OECD의 G20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2021년 6월 101.5p로 최고점을 나타낸 뒤,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 이후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2023년 2월에는 98.5를 나타내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5 | 세계교역량



자료: 네덜란드 CPB

그림 I-6 | G20 경기선행지수



주: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며 지수가 100p를 넘으면 경기상승세, 하회하면 경기하락세 예상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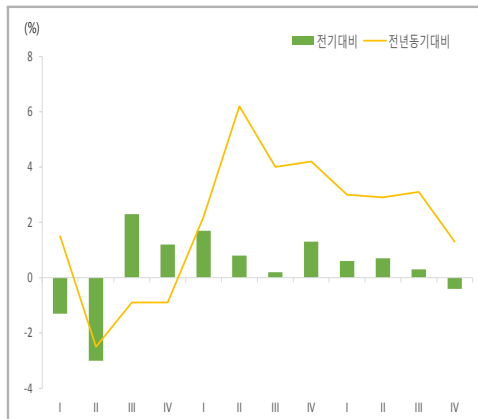
2)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2_e/pr909_e.htm

제2절 대내 여건

국내 경제의 경우 대외 여건 요인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완화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2022년까지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엔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1.3%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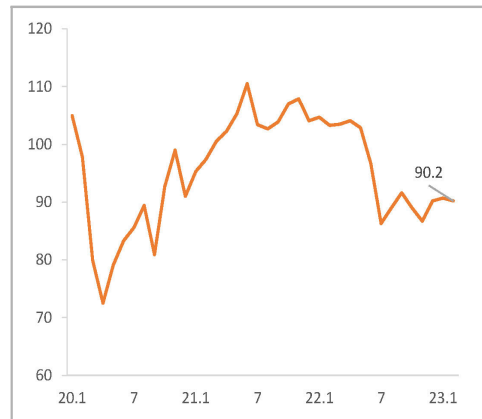
특히 2022년 물가상승률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목표안정목표(2%)보다 높았다. 고물가와 성장률 하락이 겹치면서 2022년 하반기에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되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0.2로 1월보다 0.5p 하락했다. 이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폭 확대 등에 기인한다.

| 그림 I-7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8 |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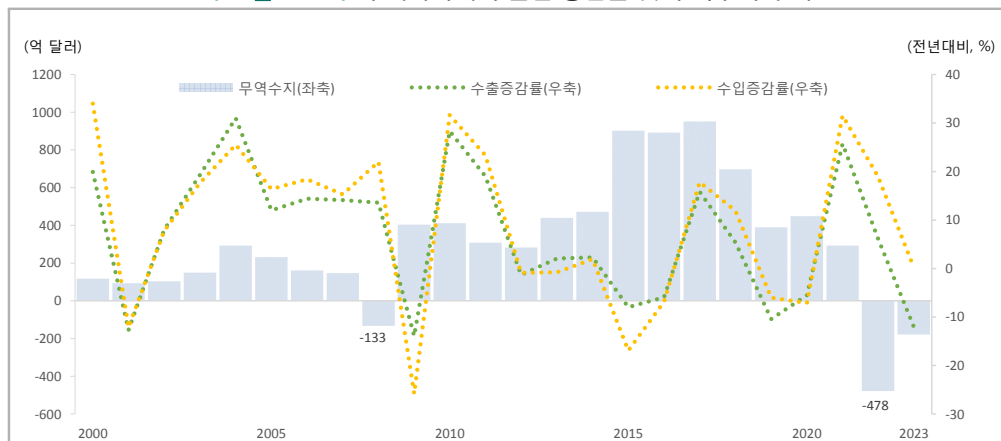
주: 소비자동향조사 기준으로 100(2003~2022년 장기 평균치 기준값) 이상이면 낙관적 소비심리, 100이하면 비관적 소비심리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경기 회복 등으로 경제 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진한 민간소비 위축, 설비·건설투자 등 주요 내수부문의 부진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둔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확대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리스크 확대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 증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침체, SOC예산 감소 등의 하방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으며 수입도 같은 기간 중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수출은 2022년 중 3월(637.9억 달러)과 5월(615.9억 달러)에 각각 역대 수출 실적 1, 2위를 달성하며 큰 폭 증가하였으나 10월 이후 세계 경기둔화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어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6,151억 달러 대비 18.9% 증가한 7,32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2008년 133억 달러 적자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2022년에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I-9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2장 산업 여건

-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와 무역안보론으로 인한 초양극화시대 도래**
 -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 증대
 -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제력으로 부상
- **원자재 가격이 2023년에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단,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에 비해 확대 가능
-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외 경기둔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2022년 3분기 이자보상배율이 2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

코로나19 팬데믹은 2020년 이후 2년 넘게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수십 년간 세계화가 진행되며 구축된 글로벌 생산 분업 구조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했다. 팬데믹 기간에 생산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으며 물류 병목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근 주요국의 ‘엔데믹(endemic)’으로의 전환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로 세계경제는 소비 및 수출 중심의 경제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에 불안정한 하방 요인들이 산재해있다. OECD는 지난 3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기업투자와 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와 식량가격 하락,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의 상방요인으로 세계경제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어려움은 있겠지만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런 상방요인이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기에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지속해서 악화되는 미-중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갈등이 WTO 체제하의 기존 공급망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인 초양극화(The Great Divide)를 내세우면서 경제안보 강화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과의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무역·투자 제재 및 수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제약하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³⁾ 「인플레이션 감축법(IRA)」,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⁵⁾ 등의 입법을 통해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과 공급망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⁶⁾을 제정하여 강화된 외국인투자심사를 시행하고, 미국 의회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투자심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고, 반도체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조치들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중국 제조 2025’ 및 ‘제14차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외국인투자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이 추진하는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도 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OBOR) 사업⁷⁾을 확장하고,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일일이 경제적 강압 조치(coercive measures)를 시행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3)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0억 달러를 지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적용 등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했다.

4)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2022년 9월에 발효했다.

5)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동 법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단체 또는 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Presumption)하고 해당 상품의 미국 시장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2022년 6월 21일에 발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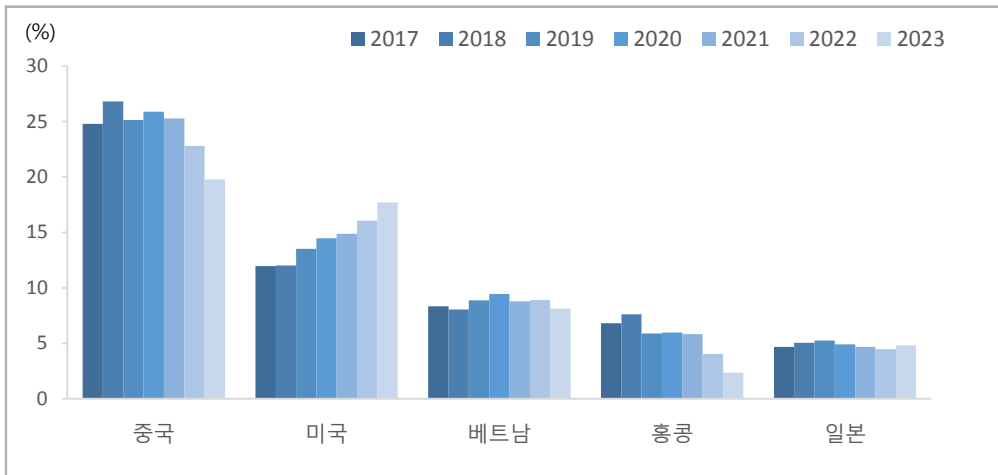
6) 첨단기술 또는 중요 기반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 배경이며 2020년 2월 13일에 발효되었다.

7)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EU도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선회했다. EU는 2021년 전략적 자율성 강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단일시장 강화 추진을 위한 신산업 전략을 발표했고,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제안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핵심적인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 및 다변화, 처리 및 재활용 과정 지원, 역외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 및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REPowerEU 계획을 지속 수행하며, 향후 전력시장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을 위한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2.8%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의 ‘중간재 수입-최종재 수출’ 산업구조에서 ‘원자재 수입-중간재 수출’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가 1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감소가 지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외수출시장을 공략하는 등 다각화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⁸⁾ 특히 특정 산업, 특정 품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림 I-10 | 우리나라 교역액 중 상위 5개국의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8) 김기승·조경엽 (2022)

글로벌 통상환경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제력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건 변화의 영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해 3,7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된 IRA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EU는 2023년 3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⁹⁾의 추진을 선언하였고, EU 회원국들도 개별적으로 자국 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2023년 10월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¹⁰⁾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비료 산업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기에 적극적인 저탄소·그린 전환이 예상된다. CBAM이 시범 시행되면 해당 산업의 관련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입 요건이 적용될 때 반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유럽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소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될 상황에서 이를 무역 장벽으로 보는 주요국 간의 통상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다. 특히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과 신흥국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에 기후 대응 이외에도 다른 국제환경협약 및 관련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참여국들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하였고, 이후 우리나라도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그린 전환의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단순히 청정에너지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역량을 가진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9) EU 탄소중립 기술 산업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안정적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럽 탄소중립 프로젝트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 고취 등을 통해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전체 보급 수요의 40%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를 통해 EU의 2030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 EU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및 EU의 에너지 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10)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제2절 원자재 수급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은 수준을 보였던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불안 확대, 이상기후, 식량 및 자원안보 의식 강화 등으로 2022년 1~2분기 동안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친환경 인프라와 연관된 원자재 수요의 증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은 국내 제품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원가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 추이를 살펴보고, 원자재 가격상승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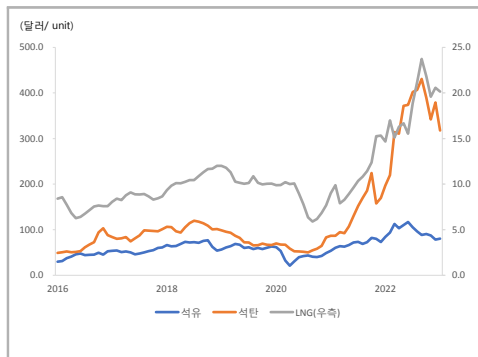
1.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추이

코로나19 팬데믹 전 배럴당 60달러 안팎이던 유가는 글로벌 수요의 급감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2020년 4월 배럴당 21달러까지 급락하였다.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잠재되어 있던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가는 반등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6월에는 배럴당 116.8달러(Crude oil 평균 기준)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2022년 12월 배럴당 78.1달러로 하락하였다. 다만 최근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유가는 2023년 1월 배럴당 80.4달러로 인상되었다.¹¹⁾

11) 국제기구는 향후 원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하에, 유가를 2023년 배럴당 82달러, 2024년 78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이상한파 전망과 러시아의 가스공급 감소¹²⁾로 대체재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석탄가격은 2021년 4분기 미터톤(천kg)당 183.9달러에서 2022년 3분기에 413.3달러로 124.8%, LNG 가격은 동기간 MMbtu당 14.3달러에서 21.3달러로 48.6% 인상되었다.

그림 I-11 |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유가(배럴)는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평균치, 석탄(mt)은 호주시장 기준, LNG(MMbtu)는 일본 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표 I-2 | 에너지 가격 동향

(단위: 달러/unit, %)

	2021	2022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 대비 증감률
석유	78	97	110	96	85	-11.6
석탄	184	244	352	413	370	-10.4
LNG	14	16	16	21	21	-2.9

주: 유가(배럴)는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평균치, 석탄(mt)은 호주시장 기준, LNG(MMbtu)는 일본 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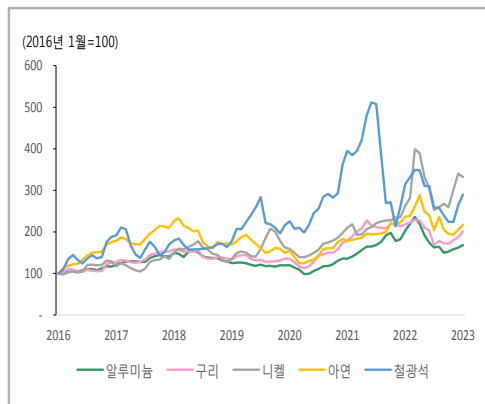
비철금속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보급 직후 세계경기 및 수요의 회복, 에너지 가격의 강세¹³⁾,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친환경 인프라 수요 지속 등으로 가격이 2022년 1~2분기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전기가 생산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알루미늄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상승,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중국과 유럽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2021년 4분기 톤당 2,755달러에서 2022년 1분기에 톤당 3,250달러까지 18.0% 상승하였다. 구리는 칠레와 페루의 공급 차질

12) 유럽의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는 2021년 기준 25.0%를 차지한다. 천연가스는 주로 전력과 난방용으로 활용되며 2018년 이전에는 60%를 상회하였으나 LNG 수입이 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가마다 편차가 있으며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은 49%, 이탈리아는 38%, 프랑스는 1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독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 가동을 2022년 9월부터, 폴란드를 경유하는 야말 라인은 2022년 5월 이후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에 유럽국가들은 부족분을 노르웨이, 영국, 북아프리카, LNG 등의 수입 확대로 상쇄하면서 LNG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오정석·김희진, “올겨울 글로벌 에너지위기 도래하나,”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2.9.)

13) 정련 및 제련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상승은 금속 가격의 강세요인으로 작용(김희진·오정석,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2022.4)

우려¹⁴⁾,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행 등으로 2021년 4분기 톤당 9,703달러에서 2022년 1분기에 톤당 9,985달러로 2.9% 상승하였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니켈은 전기차의 견조한 수요 증가,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부과 검토 전망, 미얀마의 광산 생산중단, 러시아의 생산 차질¹⁵⁾, 중국 칭산그룹의 숏커버링¹⁶⁾ 등으로 2021년 4분기 톤당 19,770달러에서 2022년 2분기 톤당 29,080달러까지 47.1% 상승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급등세를 보이던 비철금속의 가격은 2022년 4월 이후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수요 둔화, 주요국 긴축적 통화정책 추진 및 경제지표의 하락, 달러 강세 등이 나타나면서 2022년 1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중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비철금속의 재고가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구리와 니켈을 중심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다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I-12 | 비철금속가격지수 추이



자료: IMF

| 표 I-3 | 비철금속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2021	2022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 대비 증감률
알루미늄	2,755	3,250	2,887	2,356	2,335	-0.9
구리	9,703	9,985	9,546	7,761	8,024	3.4
니켈	19,770	26,765	29,080	22,097	25,527	15.5
아연	3,357	3,727	3,931	3,273	3,008	-8.1
철광석	105	140	136	106	100	-5.8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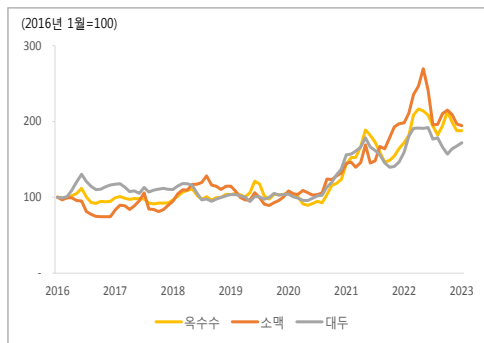
14) 칠레와 페루의 구리생산량은 2020년 기준 각각 570만톤(세계 구리생산량의 약 28.5%), 270만톤(13.5%)을 차지. 칠레의 경우 생산된 구리를 중국(생산량의 49.0%), 미국(15.5%), 한국(9.6%)에 수출(이동희, “칠레, 지금은 구리 전성시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 이윤서, “페루 광물 산업 현주소 및 진출 유의사항,”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1.)

15) 러시아는 세계 니켈생산량의 5.3%를 차지한다. 유럽으로 니켈 수출량은 2020년 기준 생산량의 약 34%, 미국으로 니켈 수출량은 5~6%로 구성한다(김희진·오정석,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2022.3)

16) 숏커버링은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의미한다. 니켈을 공매도한 칭산그룹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계약을 재매입하면서 니켈 가격이 폭등하였다.(도원빈,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 14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곡물 가격이 2022년 2분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소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평원지역의 가뭄, 인도의 수출금지¹⁷⁾ 등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2021년 4분기에 톤당 189달러에서 2022년 2분기에 253달러로 33.9% 상승하였다. 이후 소맥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재개와 미국 남부 평원 및 아르헨티나 강우 소식, 수요 둔화 등으로 2022년 3분기에 톤당 201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미국 대평원의 강추위 등으로 4분기에 톤당 207달러로 반등하였다. 옥수수는 남미 작황의 악화, 농업생산비용 급등,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4월 미국 옥수수 재배지역의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파종 지연 등으로 가격이 2021년 4분기에 톤당 156달러에서 2022년 2분기 톤당 213달러로 36.5% 상승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작면적 및 작황,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수출협상, 에탄올 수요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다. 대두는 미국과 남미의 기상 악화, 금융자금 유입, 대두유 강세 등으로 2021년 4분기에 톤당 142달러에서 2022년 2분기 톤당 191달러로 34.5%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코로나19 재봉쇄 이후 수요 위축, 미국과 남미의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10월까지 톤당 157달러로 하락하였다. 11월부터는 국제유가 상승과 저가 매수세, 대두박¹⁸⁾ 강세 등으로 2023년 2월 기준 172달러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13 | 주요 곡물가격지수 추이



자료: IMF

표 I-4 | 주요 곡물가격지수 동향
(단위: 달러/톤, %)

	2021	2022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 대비 증감률
옥수수	156	187	213	190	200	5.2
소맥	189	215	253	201	207	3.1
대두	142	177	191	174	163	-6.3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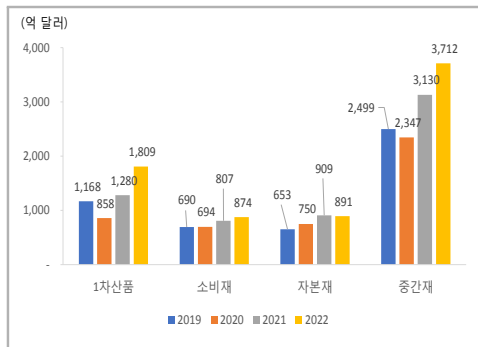
17) 인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 전년동월대비 7.79%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강우량 부족으로 밀과 대체재인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2020년 4월 이후 시행된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식량 지급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세계 수출량의 1%만 수출된다. 비록 수출량은 작지만, 인도의 밀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김신주, “인도의 밀과 쌀 수출 규제 조치 배경과 식량 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

18) 대두박은 대두에서 기름을 뺀 부산물로서, 약 44~48%의 단백질질을 함유하고 있다. 대두박은 가축사료, 콩가루, 조리식품, 두유와 두부 등 음식제조, 접착제, 폴리에스테르 및 직물제조에 활용된다. (농업용어사전 등 참조)

2. 국내 원자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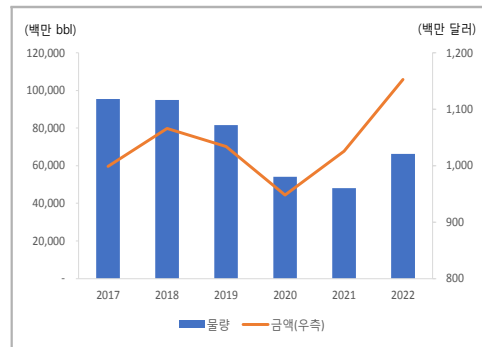
국내 수입품의 단가와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차 상품의 수입 규모는 2022년 기준 1,809억 달러로, 전년대비 41.4% 증가하였다. 이 중 원유 수입 금액은 전체 수입액(7,314억 달러)의 14.5%인 1,05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6%p 증가하였다. 이는 원유 수입량이 2022년 1,021백만bbl¹⁹⁾로 전년대비 약 7.0% 증가하였고, 수입단가는 2014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배럴당 103.7원으로 전년대비 47.7% 상승한 데 기인한다. 참고로, 전년도 수입액은 6,151억 달러이며, 이 중 원유 수입액은 670억 달러로 10.9%를 차지하였다.

그림 I-14 |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15 | 원유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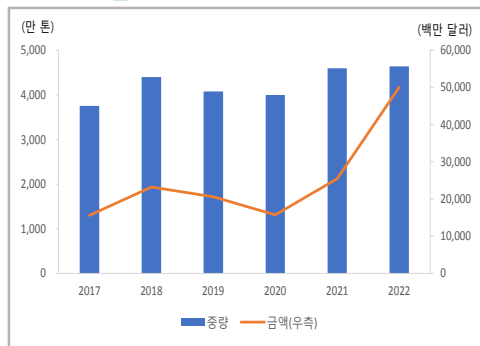


자료: 석유공사, 관세청

천연가스의 수입금액은 500억 달러이며 전체 수입액의 6.8%를 차지한다. 천연가스 수입량은 2022년 4,639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0%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1,078만 달러로 전년대비 94.6% 상승하였다. 석탄의 수입금액은 279억 달러이며 전체 수입액의 3.8%를 차지한다. 석탄 수입량은 2022년 123억톤으로 전년대비 약 0.4% 감소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227만 달러로 전년대비 94.7%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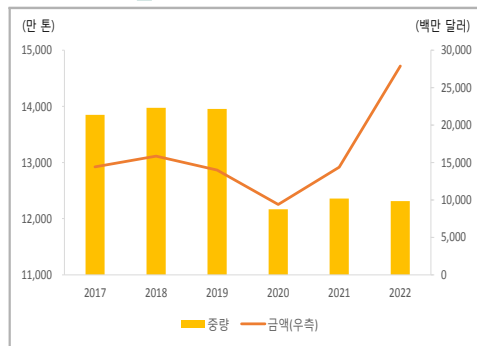
19) 배럴(barrel)은 야드파운드법에 있어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기호로는 bbl(석유용 배럴에 한함)을 쓴다. 원유나 각종의 석유 제품의 계량은 배럴로 행해지며 1배럴은 158.987리터를 말한다.

| 그림 I-16 | 천연가스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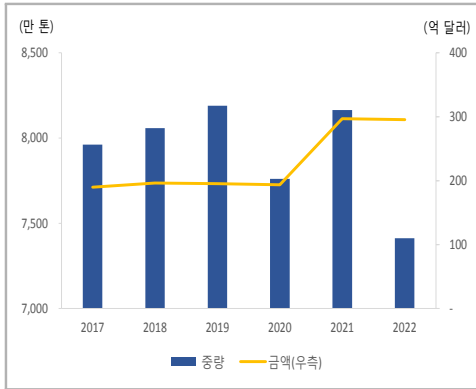
| 그림 I-17 | 석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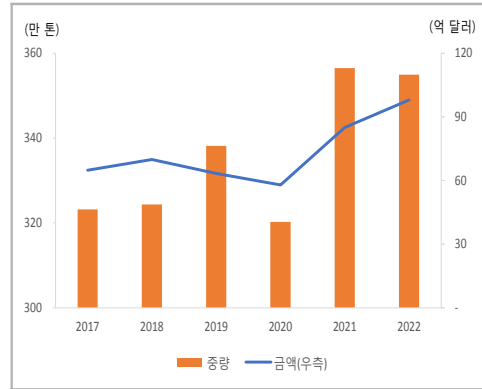
주요 비철금속의 수입 규모는 2022년 기준 295억 달러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총수입량은 철광석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9.2% 감소한 7,412만 톤이었으나 아연, 니켈, 알루미늄의 단가가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수입액은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루미늄 수입량은 2022년 355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0.4% 감소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2,760달러로 전년대비 15.7% 상승하였다. 구리 수입량은 2022년 236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2.4%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2,789달러로 전년대비 2.8% 하락하였다. 니켈 수입량은 2022년 1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50.7% 증가하였고 수입단가도 톤당 197백 달러로 전년대비 20.5% 상승하였다. 아연 수입량은 2022년 17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7.1% 감소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14백 달러로 전년대비 24.2% 상승하였다. 철광석 수입량은 2022년 6,642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0.3% 감소하였고 수입단가도 톤당 134달러로 전년대비 17.6% 하락하였다. 참고로, 비철금속의 수입규모는 알루미늄(98억 달러), 철광석(89억 달러), 구리(66억 달러), 아연(24억 달러), 니켈(19억 달러) 순이다.

Ⅰ 그림 I-18 | 주요 비철금속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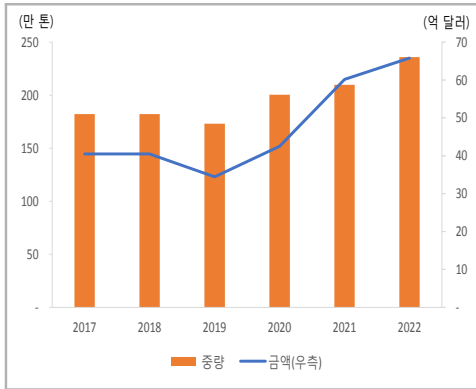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그림 I-19 | 알루미늄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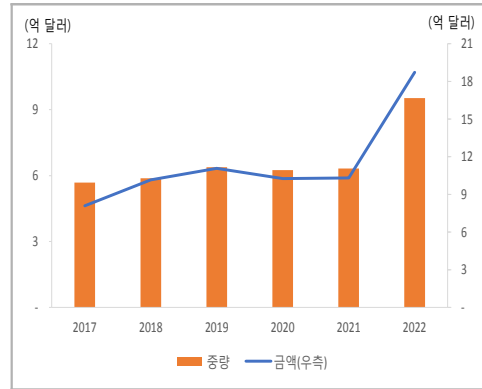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그림 I-20 | 구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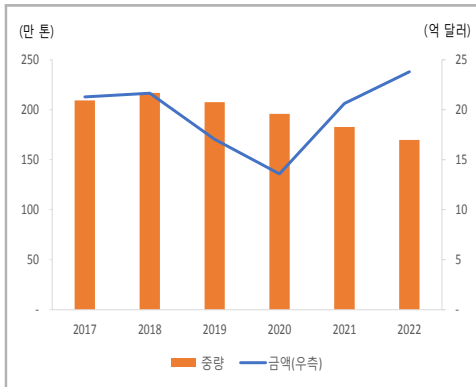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그림 I-21 | 니켈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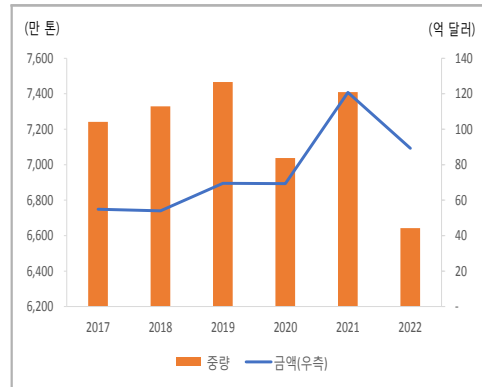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그림 I-22 | 아연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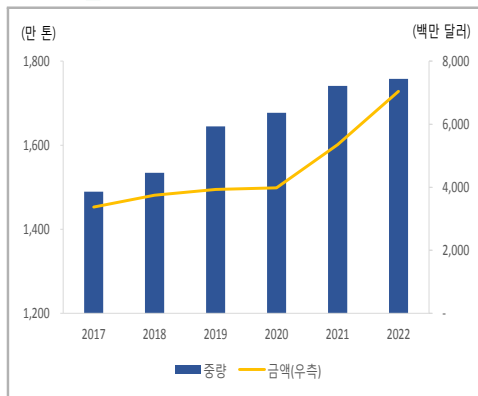
Ⅰ 그림 I-23 | 철광석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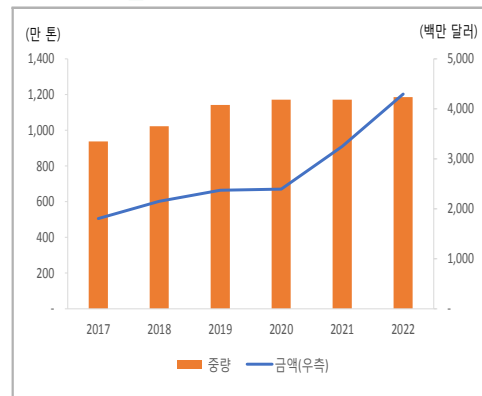
주요 농산물의 국내 수입은 2022년 기준 70.5억 달러로,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1.0% 증가한 1,758만 톤이었으나 수입 단가가 증가하면서 수입액은 2021년(34.5%)에 이어 31.5%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옥수수 관련 농산물 수입량²⁰⁾은 2022년 약 1,186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3%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362달러로 2021년 35.8%에 이어 전년대비 30.6%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옥수수 수입액은 약 43억 달러로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다.

그림 I-24 | 주요 농수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25 | 옥수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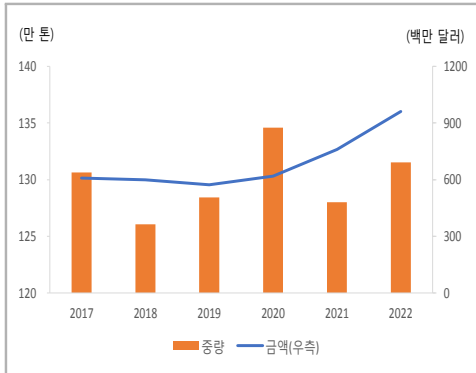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두 관련 농산물²¹⁾ 수입량은 2022년 약 132만 톤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725달러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29.0%에 이어 두 자리의 증가율이다. 이로 인해 대두 수입액은 9.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5% 증가하였다. 소맥 수입량은 2022년 약 441만 톤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나 수입단가는 톤당 406달러로 전년대비 32.9%의 인상되었다. 그 결과, 대두 수입액은 17.9억 달러로 전년대비 32.4% 증가하였다.

20) 옥수수(HSK 코드로 1005), 옥수수가루(110220), 옥수수로 만든 것(110313, 110423), 옥수수에서 나온 것(23021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151620203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23069030)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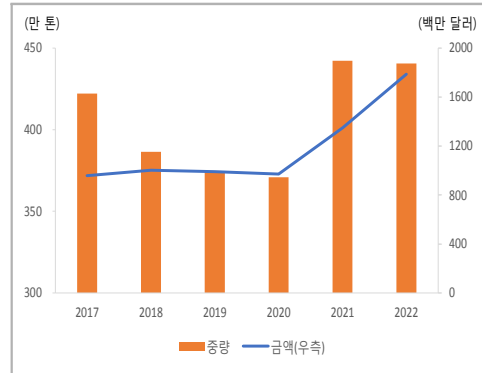
21) 대두(HSK 코드로 1201), 대두로 만든 것(120810), 대두유와 그 분획물(151620205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1518002000)를 단순 합산한 수치이다.

Ⅰ 그림 I-26 Ⅰ 대두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그림 I-27 Ⅰ 소맥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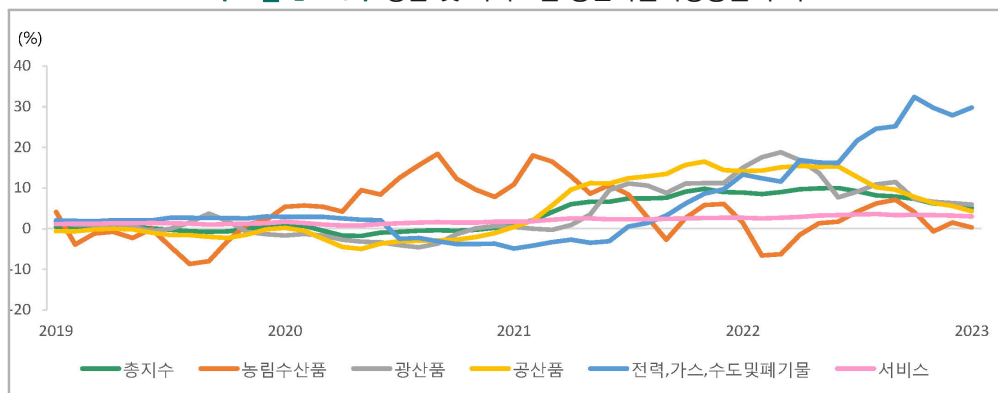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원자재 가격상승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원유, 비철금속, 곡물 가격의 상승은 생산자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생산자물가는 2022년 6월 10.0%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기·가스·수도 사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상승폭이 하락하면서 2023년 1월 5.1%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및 폐기물의 경우 생산자물가가 2022년 6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23년 1월 29.8%로 총지수 상승률(5.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생산자물가가 2022년 9월 7.1%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산품의 생산자물가도 2022년 3월 18.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등락을 보이며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다. 공산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022년 4월 15.4%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1월 4.3%로 하락하였다. 다만, 제품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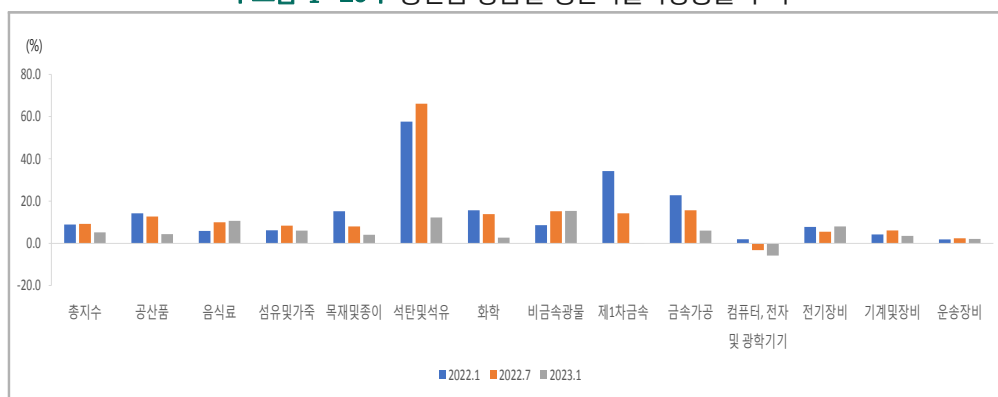
| 그림 I-28 |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석탄 및 석유 제품의 경우 2022년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83.3%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월 12.2%로 상승폭이 감소하였다. 반면, 식음료품, 비금속광물, 전기장비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 제품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I-29 | 공산품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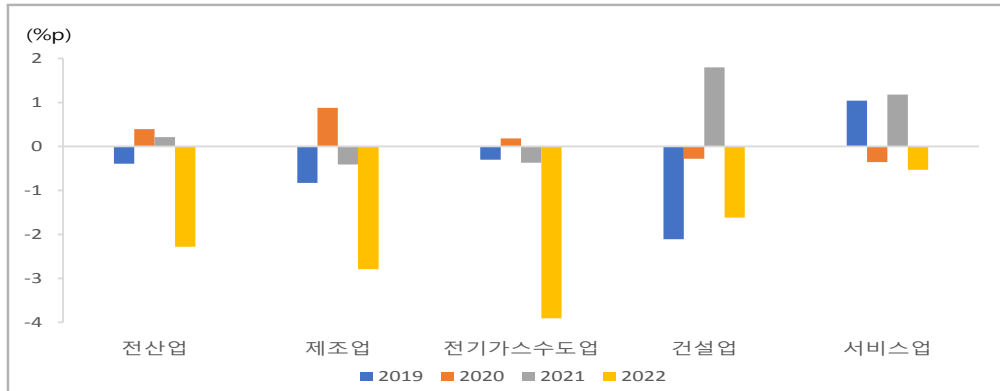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세전순이익률²²⁾을 살펴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원자재,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2분기 7.2%

22) 매출액 대비 세전이익을 나눈 값으로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및 재무활동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에서 3분기 5.0%로 전산업 실적이 2.3%p 감소하여 전년(0.2%p)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3.9%p), 제조업(-2.8%p), 건설업(-1.6%p), 서비스업(-0.5%p)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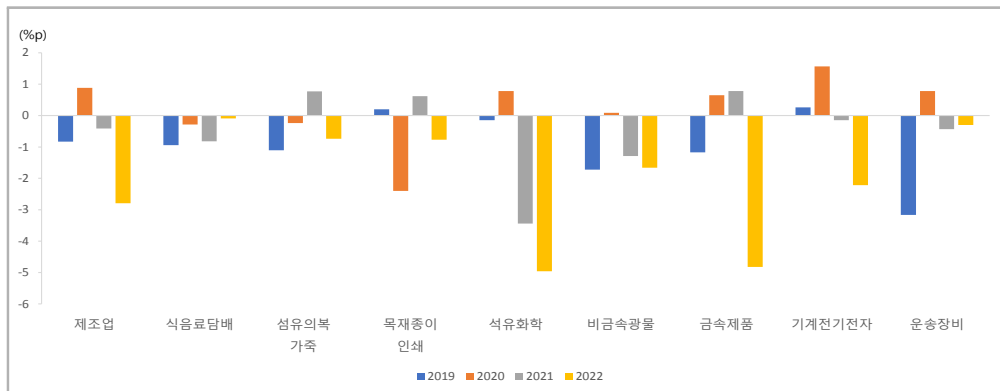
| 그림 I-30 | 업종별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변동분 추이



주: 변동분은 2022년 2분기와 3분기의 차이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세전순이익률 감소분이 석유화학(-5.0%p), 금속제품(-4.8%p), 기계·전기·전자제품(-2.2%p), 비금속광물(-1.7%p), 목재·종이(-0.8%p), 섬유·가죽(-0.7%p), 운송장비(-0.3%p), 가구기타(-0.2%p), 식음료(-0.1%p)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I-31 | 제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변동분 추이



주: 변동분은 2분기와 3분기의 차이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물론 생산자물가 상승이 원유, 원자재 및 곡물 가격상승에 전적으로 기인하지는 않으며 임금상승과 설비투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연구결과²³⁾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시 생산원가는 전산업 평균 0.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비철금속(2.87%), 철강제품(1.77%), 석유화학(1.48%), 금속제품(1.11%)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 다른 연구²⁴⁾에서는 곡물, 유지, 비료 가격이 각각 45%, 30%, 80% 상승하는 경우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축산 8.2~8.4%, 육류 및 낙농품 6.0%, 제분 18.9%, 전분 및 당류 10.9%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2022년을 2~3분기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안정세를 보일 전망²⁵⁾이라는 점이다. 다만,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에너지 가격이 2023년에 반영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에 비해 확대될 수 있다.²⁶⁾

제3절 금리 변동

1. 기업 대출금리 및 대출금 추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5%에서 2023년 1월 3.5%로 3.0%p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대출금리도 인상되었는데, 예금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21년 5월 2.67%에서 2022년 11월 5.67%로 3.0%p 인상되었다.²⁷⁾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금리가 2020년 11월 5.93%에서 2022년 12월 10.59%로 4.66%p 인상되었다.

23) 강내영·강성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Trade Focus 2021년 1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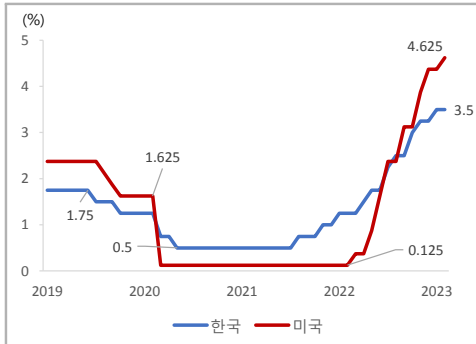
24) 김나을,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Trade Focus 2022년 1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12.

25) EIA는 향후 원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하에, 유가를 2023년 배럴당 82달러, 2024년 78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6) 박우영·박명덕(2017)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총생산이 0.08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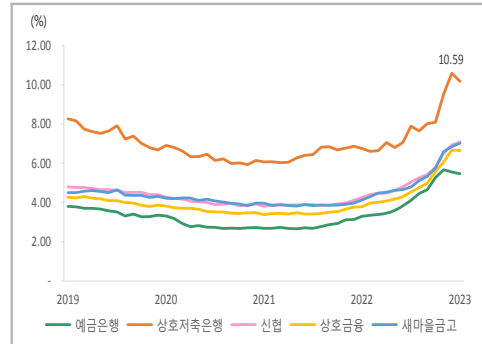
27) 기업 대출금리가 잔액 기준으로 2021년 6월 2.79%에서 2022년 12월 5.13%로 2.34%p 증가하였다.

그림 I-32 |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33 | 금융권의 기업 대출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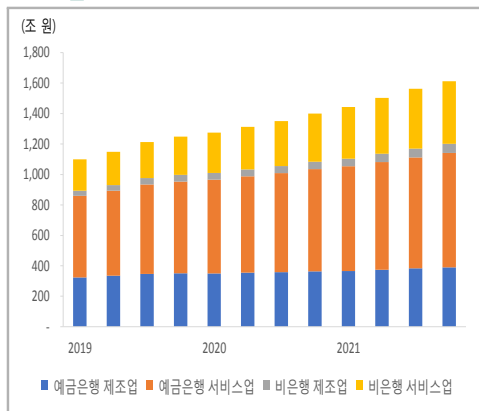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2) 신한과 새마을금고는 일반대출 금리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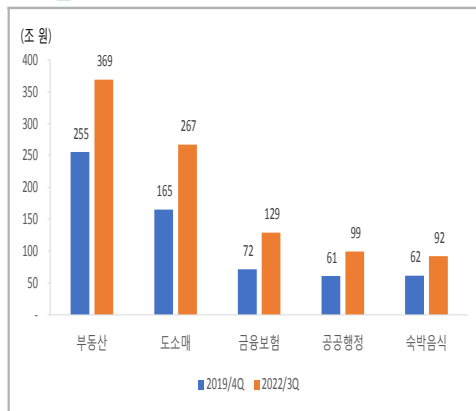
2023년에도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와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은 민간의 소비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감소시키고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자기자본의 비중이 낮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참고로 산업별 대출금은 2022년 3분기 기준 1,789조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46.5%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은 동기간 930조 원에서 1,237조 원으로 306조 원(32.9%) 증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77조 원에서 532조 원(92.3%)으로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중에서 대출 규모가 큰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해당 업종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 증가율이 각각 127.8%, 114.9%, 76.1%로 전체 평균(32.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그림 I-34 | 산업별 취급기관별 대출금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35 | 주요 서비스업 업종별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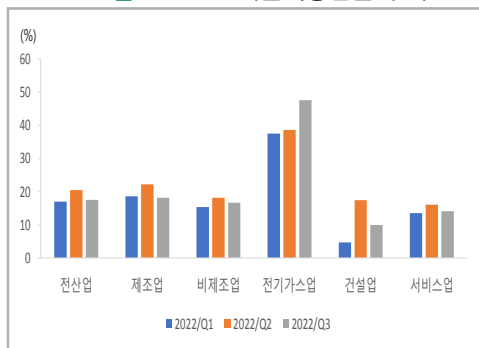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금리인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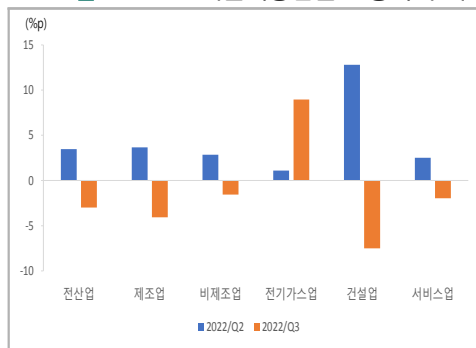
전산업 매출액증가율²⁸⁾은 2022년 1~3분기 평균 18.4%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상반기 수출 호조로 19.7% 증가하였다.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1~3분기 평균 매출액이 각각 10.7%, 14.6% 증가하였다.

| 그림 I-36 | 매출액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그림 I-37 | 매출액증감률 변동폭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8) 한국은행의 기업경영지표는 연간과 분기로 작성되며, 외감기업에 대해서는 분기자료만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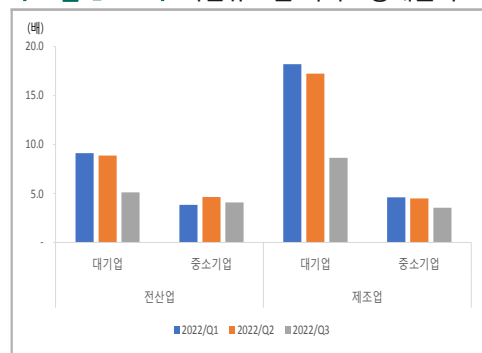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산업의 이자보상배율²⁹⁾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2년 1분기 7.2배, 2분기 7.8배에서 3분기 4.9배로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22년 1분기 12.4배, 2분기 13.5배에서 3분기 7.3배로 감소하였다. 전기가스업의 경우 2022년 1분기 -8.6배에서 2분기 -5.2배로 줄어들었으나 3분기 들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7.1배로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배율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Ⅰ 그림 I-38 | 이자보상배율 추이



주: 외감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Ⅰ 그림 I-39 |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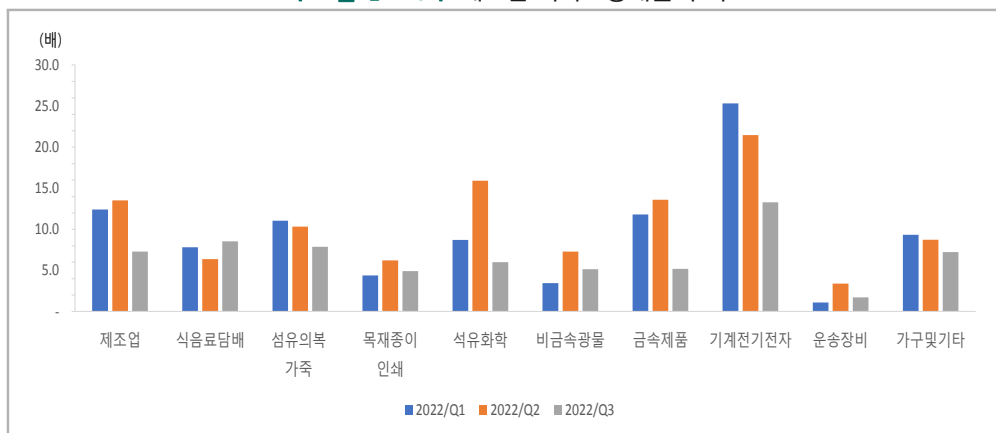


주: 외감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제조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2분기에 비해 3분기 이자보상배율이 금속제품,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업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제품 8.4배, 기계·전기·전자 8.2배, 석유화학 9.9배 감소하였다. 운송장비의 경우 1분기 1.1배, 2분기 3.4배, 3분기 1.7배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9)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을 나눈 값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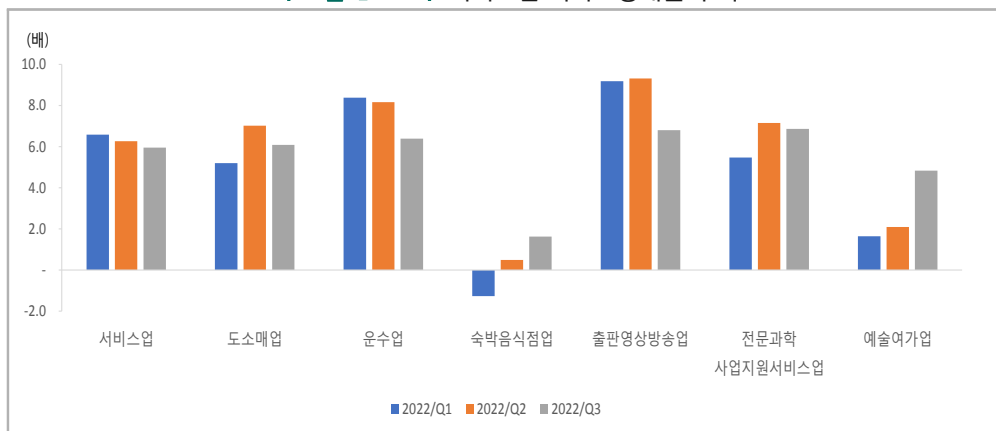
I 그림 I-40 | 제조업 이자보상배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서비스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2분기에 비해 3분기 이자보상배율이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업, 전문과학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의 이자보상배율이 소비회복세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분기 0.5배, 3분기 1.6배로 서비스업 전체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I 그림 I-41 | 서비스업 이자보상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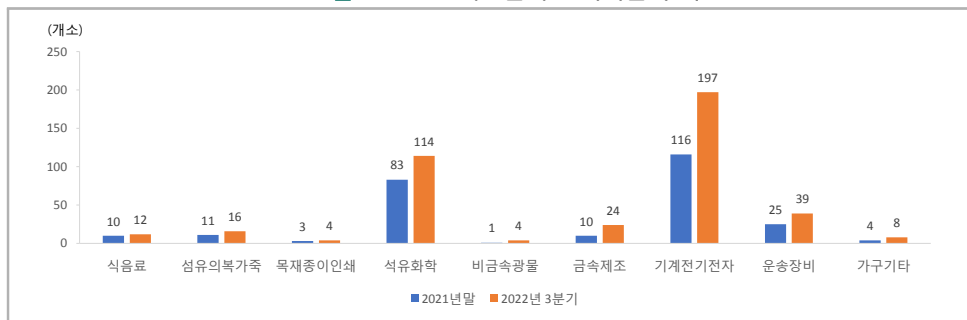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BOX 1] 상장기업의 한계기업 추이

최근 금리인상은 한계기업³⁰⁾ 비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을 추정해 본 결과³¹⁾, 제조업의 경우 조사대상인 1,542개소 중 2019~2021년 동안 한계기업이 263개(17.1%)에서 2022년 3분기 말 기준 418개(27.1%)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계·전기·전자(81개소)와 석유화학(31개소), 운송장비(14개소) 업종의 한계기업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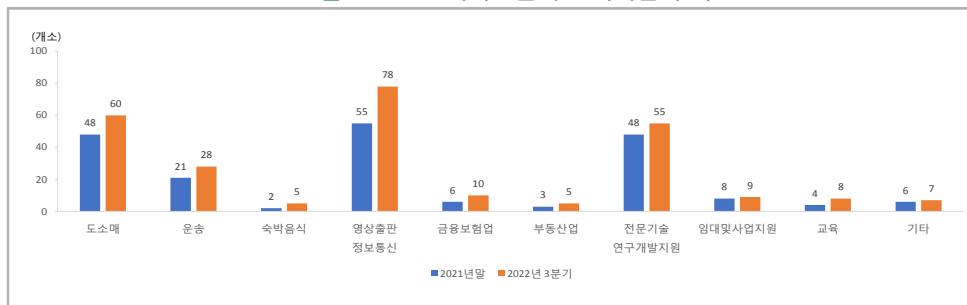
그림 I-42 | 제조업의 한계기업 추이



자료: KIS ValueSearch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서비스업의 경우 조사대상 814개소 중 2019~2021년 동안 한계기업이 191개소(23.5%)에서 2022년 3분기 말 기준 252개소(31.4%)로 증가하였다. 특히 영상출판정보통신(23개소)과 도소매(12개소) 업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림 I-43 |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추이



자료: KIS ValueSearch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30) 본 절에서 한계기업은 2019년부터 이자보상배율이 1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31) 결산월이 12월이며 재무제표 누락 및 오류가 없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3 경제전망 II

생산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

생산 부문별 전망

제1장 2023년 전망의 수정 요인

제2장 제조업

제3장 서비스업

제4장 건설업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제1장 2023년 전망의 수정 요인

제1절 2022년 전망 차이 및 요인

국민계정에서 생산 GDP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³²⁾로 구성되고, 총부가가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구성된다. 단, 농림어업, 광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산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아 본 보고서에서는 기타로 통합하여 전망하였다.

2022년 실질GDP 실적치(2.6%)와 NABO전망치³³⁾(2.5%)와의 차이는 0.1%p로 나타났다. 총부가가치는 전망치(2.9%)보다 높은 실적치(3.0%)를 기록하였고, 순생산물세는 전망치(-1.5%)보다 낮은 실적치(-2.0%)를 기록했다. 순생산물세의 차이는 순생산물세를 생산 GDP와 총부가가치의 잔차로 산출하는 모형 상의 통계적 차이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활동 부문별로 전망 차이의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 제조업 부가가치의 전망치(2.7%)와 실적치(1.4%) 간에는 -1.3%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4분기에 반도체, 화학 등 주력 산업 부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생산이 동반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분기대비 6.7% 감소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부가가치도 -2.4% 역성장하였다. 전망 당시 2022년 4분기 중 수출과 생산의 감소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실제 실적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망 차이가 확대되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전망치(3.3%)와 실적치(4.2%) 간에는 0.8%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4분기에 소비자물가가 전망치(5.2%)보다 낮은 실적치(5.1%)를 기록하였고,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한 것에 기인한다. 2022년 4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성장이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32) 순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즉,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세, 수출세, 기타생산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33) 2023년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제약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금융 및 보험업의 생산도 증가하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건설업 부가가치의 전망치(-1.7%)와 실적치(0.3%) 간에는 -2.0%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2022년 건설투자 실적치(-3.5%)가 전망치(-2.9%)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건설 착공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던 것에 기인한다. 건설업은 착공과 준공 사이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건설투자의 감소로 착공이 감소하더라도, 기존 투자분에 대한 준공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 부가가치는 전망치(1.7%)와 실적치(1.9%) 간에는 0.2%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에 대부분을 의존하는데, 2022년 서비스업 생산의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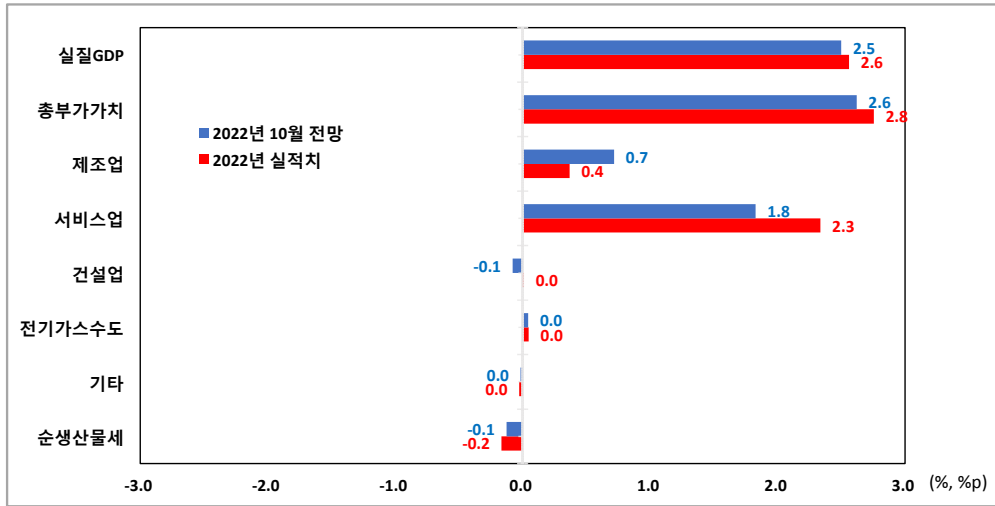
표 II-1 |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부문별 비교

(단위: 2015년 연쇄가격, 원계열, %p)

	중기전망(22.10월)	실적치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2.5	2.6	0.1
총부가가치	2.9	3.0	0.1
제조업	2.7	1.4	-1.3
서비스업	3.3	4.2	0.9
건설업	-1.7	0.3	2.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7	1.9	0.2
기타	-0.9	-1.5	-0.6
순생산물세	-1.5	-2.0	-0.5

2022년 실질GDP 실적치 2.6%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총부가가치 2.8, 순생산물세 -0.2로 분석된다. 생산 부문별로는 제조업 0.4, 서비스업 2.3, 건설업 0.0 등이다.

| 그림 II-1 | 2022년 전망과 실적치의 성장기여도 비교



제2절 2023년 수정 전망 요인

2023년 실질GDP 수정 전망(1.5%)은 중기 전망³⁴⁾(2.1%) 대비 0.6%p 하향 조정되었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최근 큰 폭의 수출 감소와 내수 감소에 따른 재고 누적, 생산 능력 및 조업량 하락 등을 반영해 중기 전망(2.3%) 대비 2.8%p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세계교역량의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개선의 불확실성,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 등을 반영하였다. 서비스업 부가가치에 있어 물가 안정화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은 하방 요인이거나, 최근까지 가계의 소비가 중기 전망과는 달리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상방 요인이다. 중기 전망 당시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던 소비 감소 폭이 실제로는 작게 나타나고 있어, 중기 전망(2.3%) 보다 상향 조정하였다. 건설업 부가가치는 최근 주택담보 대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 해소 가능성이 제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기 전망(-0.1%) 대비 0.1%p 상향 조정되었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 부가가치는 서비스업의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중기 전망(2.1%) 대비 0.1%p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는 제조업의 하향 조정과 서비스업의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중기 전망(2.1%, 2.1%) 대비 각각 0.4%p, 3.4%p 하향 조정되었다.

34) 2023년 중기 경제전망(2022.10월 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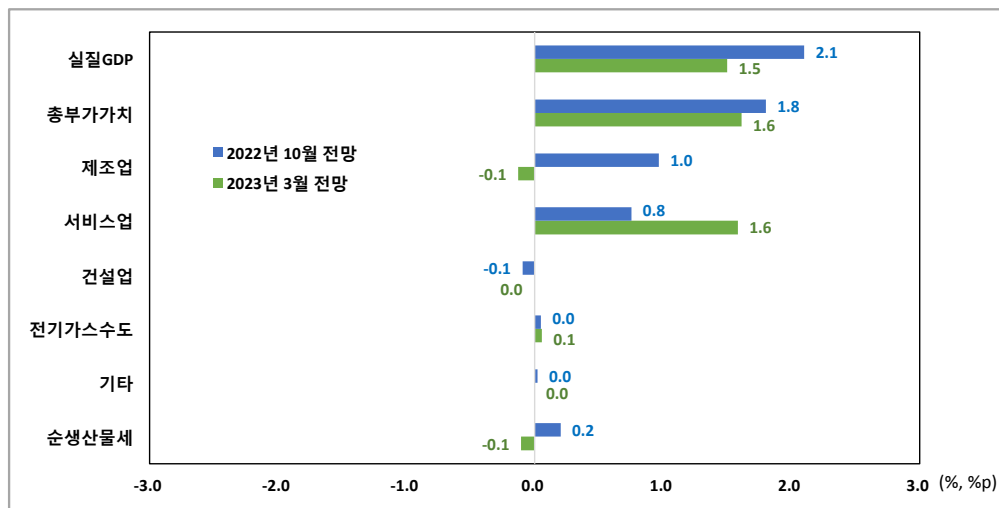
표 II-2 |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단위: 2015년 연쇄가격, 원계열, %p)

	중기전망(22.10월)	수정전망(23.3월)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2.1	1.5	-0.6
총부가가치	2.1	1.7	-0.4
제조업	2.3	-0.5	-2.8
서비스업	2.2	2.8	0.6
건설업	-0.1	0.0	0.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1	2.2	0.1
기타	0.6	0.0	-0.6
순생산물세	2.1	-1.3	-3.4

2023년 실질GDP 전망치 1.5%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총부가가치 1.6, 순생산물세 -0.1로 분석된다. 생산 부문별로는 제조업 -0.1, 서비스업 1.6, 건설업 0.0, 전기·가스 및 수도업 0.1 등이다.

그림 II-2 | 2023년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1.4%)보다 낮은 0.5% 감소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6.9	3.0	-0.2	1.4	-2.3	1.3	-0.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 세계경기 침체와 교역 위축
• 주요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 미·중 갈등과 중국의 공급망 내부화
• 공급망 차질 일부 해소	• 반도체 업황 부진과 재고 증가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디커플링

가. 동향

(수출 동향)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6,83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월간 수출은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며 2023년 2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수출은 2022년 5월 21.4% 증가하며 연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후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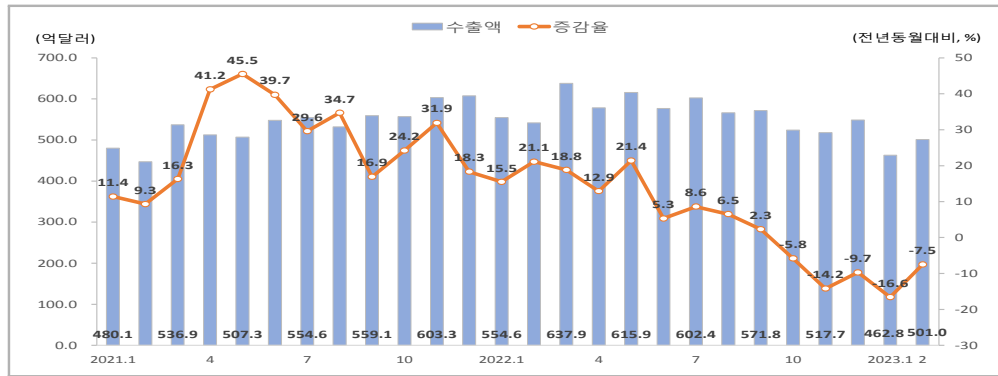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조치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계교역량 위축³⁵⁾, 국제유가 오름세 진정, 공급망 차질 일부 완화 등 긍정적 요인에도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35) CPB(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의 「World Trade Monitor December 2022(2023.2.24.)」에 따르면 세계교역량(물량)은 2022년 10월 전월대비 -1.1%, 11월 -1.7%, 12월 -0.9% 감소하였다.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안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 반도체 수요 하락, 대중국 수출부진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그림 Ⅱ-3 |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주: 2023년 2월은 잠정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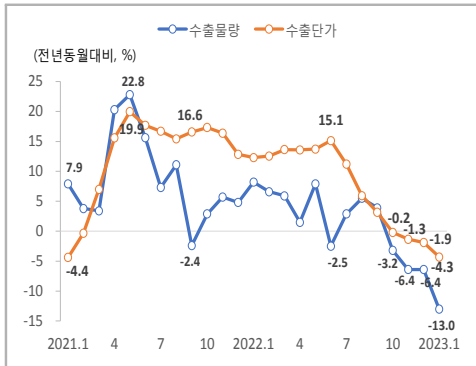
수출을 가격과 물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가와 물량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최근까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수출단가는 2022년 10월 2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로 전환된 후, 2023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였다.³⁶⁾ 수출물량은 2021년 9월(-2.4%), 2022년 6월(-2.5%)에 각각 한 차례씩 감소한 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현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은 2021년 9월과 2022년 6월에도 각각 2.4%, 2.5% 감소한 바 있으나, 수출단가가 각각 16.6%, 15.1% 증가함에 따라 월간 수출은 각각 16.9%, 5.3%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4개월 연속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어, 수출 감소 폭과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단가의 하락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기인한다. 수출물량 감소는 세계 수요의 감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우리 제품의 중국 내 점유율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2022년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이 2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미국 16.1%, 베트남 8.9%, 일본 4.5% 순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8%로 최

36) 총수출금액은 2023년 2월까지 자료가 공표되었으나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1월까지만 공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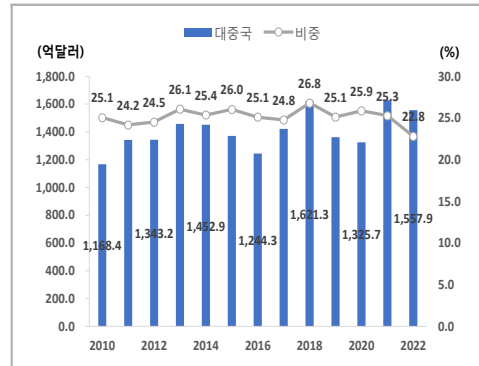
대치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나, 2022년의 22.8%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4 | 제조업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추이



주: 수출물량은 한국은행의 수출물량지수, 수출단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단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II-5 | 대중국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수출 비중의 축소는 수출에서 기존의 한-중 수출의 보완 및 동조화 관계가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수출 동조화가 소멸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³⁷⁾ 2017~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6.5%로 중국의 수출 연평균 증가율 10.3%와 동조화 현상이 매우 뚜렷했다. 2022년 중국의 수출은 7.1%, 수입은 1.4% 증가를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4.4%)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의 비중은 2022년 74.2%로 2021년(72.2%)에 비해 2.0%p 상승했다. 그러나 이를 분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22년 4분기에 중간재에 대한 수출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수출이 감소³⁸⁾하며 2021년 대비 급격히 감소(-11.8%)했다.

37)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3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23.3.2.

표 II-3 | 가공단계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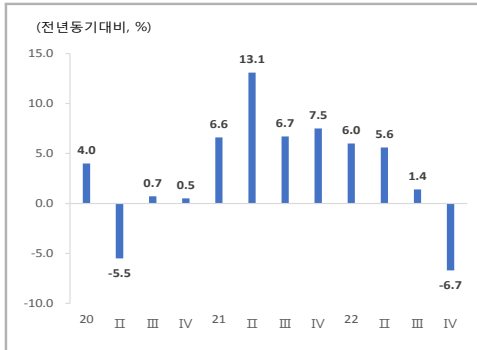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비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비중	1월
총계	6,444.0	-	1,734.0 (18.4)	1,771.1 (13.0)	1,740.2 (5.8)	1,590.5 (-10.0)	6,835.8 (6.1)	-	462.8 (-16.6)
1차산품	39.4	0.6	10.2 (46.3)	12.5 (11.1)	10.8 (0.5)	10.6 (1.7)	44.1 (12.0)	0.6	2.8 (-18.4)
소비재	781.7	12.1	185.3 (-3.6)	195.7 (-0.7)	206.5 (12.2)	222.0 (6.6)	809.6 (3.6)	11.8	67.8 (8.6)
자본재	954.1	14.8	227.9 (-5.0)	224.3 (1.1)	217.2 (-3.7)	222.0 (-16.8)	891.4 (-6.6)	13.0	65.9 (-2.8)
중간재	4,654.0	72.2	1,307.2 (28.1)	1,335.7 (17.8)	1,303.3 (6.7)	1,127.0 (-11.8)	5,073.3 (9.0)	74.2	324.2 (-22.9)
기타	14.8	0.2	3.3 (-22.1)	2.9 (-16.6)	2.4 (-22.6)	8.9 (126.2)	17.5 (18.5)	0.3	2.1 (25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생산 동향) 2022년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2021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2021년의 8.4%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2년 제조업 생산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0%, 5.6%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1.4% 증가로 성장세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4분기에는 6.7% 감소로 전환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중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봉쇄조치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산도 급격히 둔화되었다. 월별 제조업 생산은 10월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되어 2023년 1월까지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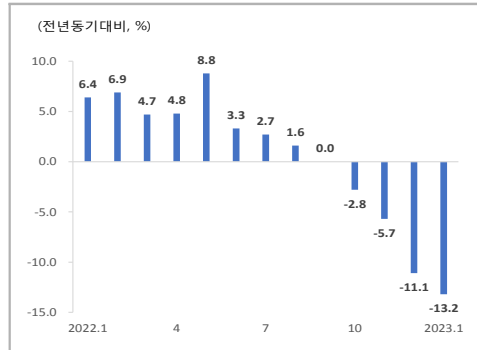
39) ('22.10.) -2.8% → ('22.11.) -5.7% → ('22.12.) -11.1% → ('23.1.) -13.2%

그림 II-6 | 분기별 제조업 생산



주: 2023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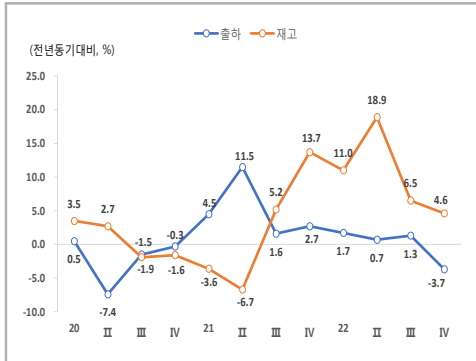
그림 II-7 | 월별 제조업 생산



제조업 출하⁴⁰⁾는 2021년 3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4분기에는 3.7% 감소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출하는 2021년 3분기부터 재고가 추세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기간 중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22년 4분기에는 재고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출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제조업 월간 출하는 8월부터 추세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2022년 10월 1.1%에서 2023년 1월 -9.8%를 기록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고, 재고는 2022년 10월 4.2%에서 2023년 1월 10.0%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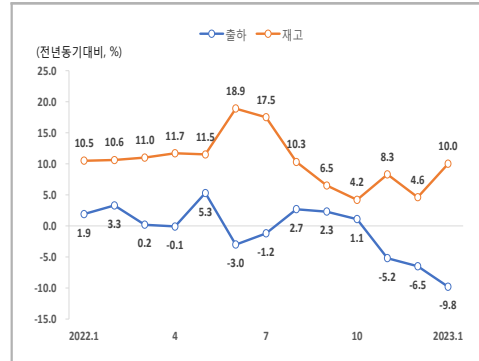
40) 출하는 크게 내수, 수출, 타공장 및 기타 출하로 구분된다. 내수출하는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국내 판매업자, 타 사업체,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출하되었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경우를 의미한다. 수출출하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 또는 주한외국군, 면세점으로 납품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공장 및 기타 출하는 동일조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었거나, 선물, 건본, 전사용, 제품포장용, 설비보수용 등으로 출하된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7.)

Ⅰ 그림 Ⅱ-8 Ⅰ 분기별 출하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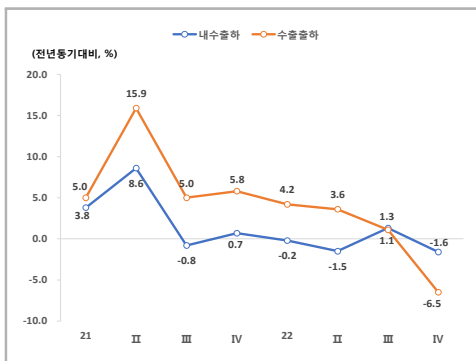
주: 2023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Ⅰ 그림 Ⅱ-9 Ⅰ 월별 출하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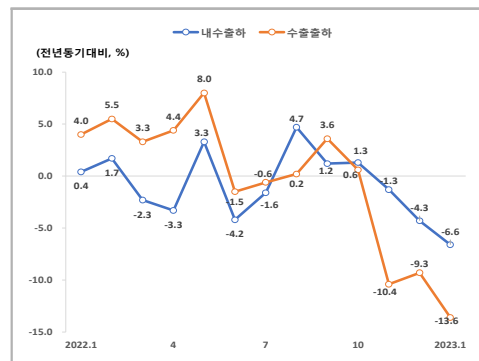
2022년 제조업 출하를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내수출하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유지하며 0.5% 감소하였고, 수출출하는 1~3분기 중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4분기 중 6.5% 감소하여 2022년 전체로는 0.5% 증가하였다. 2022년 2분기까지는 수출출하의 증가율이 내수출하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3분기부터 수출출하와 내수출하의 증가율이 역전되었고 4분기에는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수출하보다 수출출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내수출하와 수출출하의 증가율을 월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22년 10월 각각 1.3%, 0.6%에서 2023년 1월 각각 -6.6%, -13.6%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Ⅰ 그림 Ⅱ-10 Ⅰ 분기별 내수 및 수출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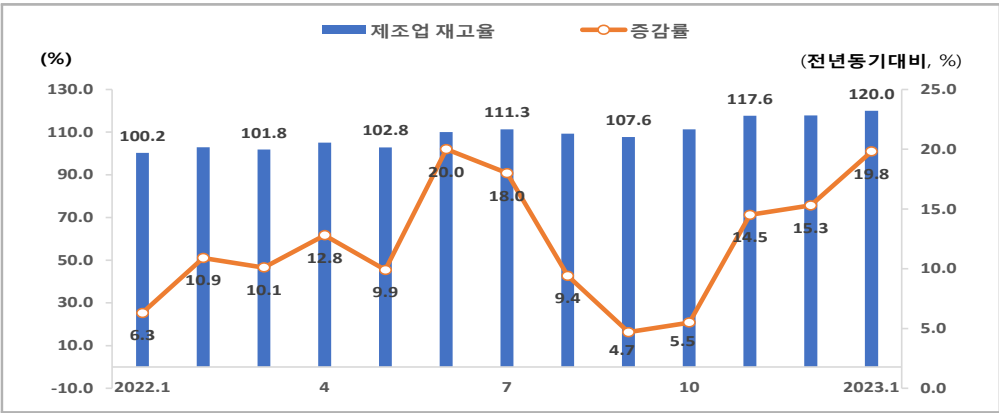
주: 2023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Ⅰ 그림 Ⅱ-11 Ⅰ 월별 내수 및 수출 출하



재고율⁴¹⁾은 2022년 1월 100.2%에서 7월 111.3%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1월 120.0%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 재고율이 120%를 상회한 경우는 1998년 8월 121.1%를 기록한 후 처음이다. 재고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수출 감소에 더해 국내 소매판매(-2.1%)도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3년 1월 전년동기대비 내구재(-3.5%)와 준내구재(-5.8%)의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그림 Ⅱ-12 | 제조업 재고율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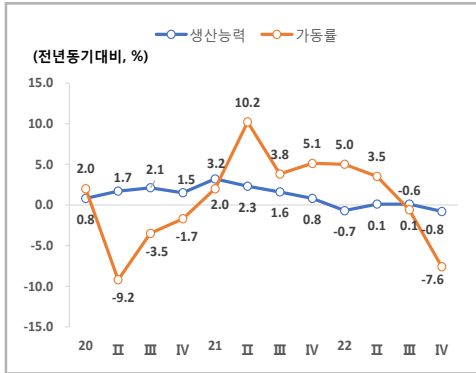


주: 2023년 2월은 잠정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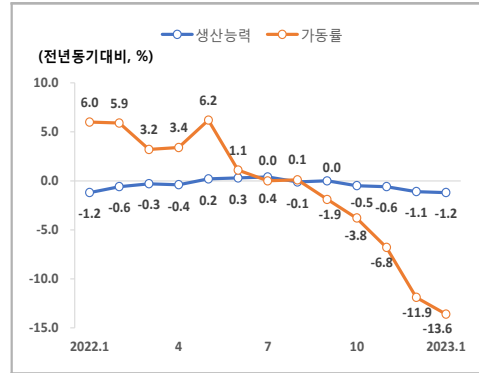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능력⁴²⁾은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하였고, 가동률은 7.6% 감소하였다. 월별 생산능력이 2022년 7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연속하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월별 가동률도 2022년 9월 -1.9%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출하 감소에도 재고가 감소한 것은 제조업의 생산능력⁴³⁾이나 가동률⁴⁴⁾이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4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의 비율(재고/출하 비율)을 의미한다. 재고율은 재고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인식되는데, 재고율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재고가 출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22.10.) -2.8% → ('22.11.) -5.7% → ('22.12.) -11.1% → ('23.1.) -13.2%
43) 생산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
44) 생산설비의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산출된다.

Ⅱ-13 | 분기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Ⅱ-14 | 월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 2023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나. 전망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와 반도체 등 IT산업의 ‘코로나19 특수’ 종료에 따른 수출 감소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제조업 생산능력 저하와 가동률 하락 등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3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2년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3%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1.3%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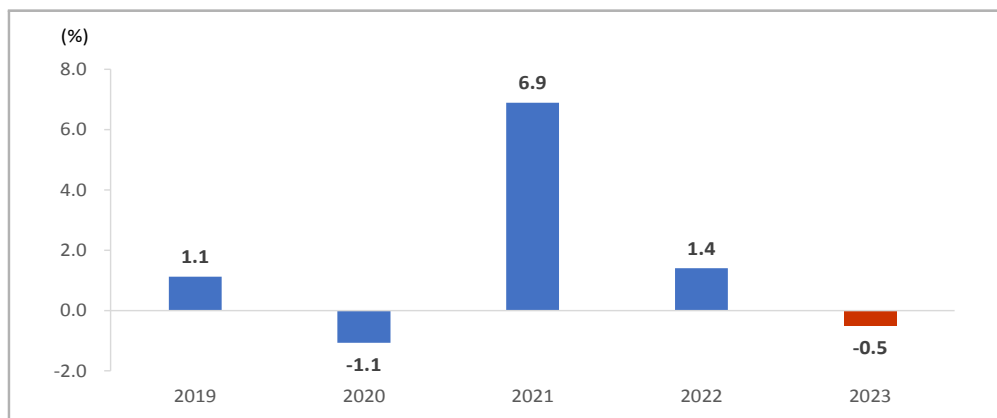
Ⅱ-4 |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6.9	3.0	-0.2	1.4	-2.3	1.3	-0.5

2022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실물경제 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 경기 흐름과 관련하여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회복 가능성, 차량용 반도체 등 일부 산업 부문의 수급 불안 완화,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은 상방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와 교역량 축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가능성,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등 하방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 제조업 생산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그림 II-15 |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상방요인)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회복 가능성, 공급망 불안 일부 완화,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은 상방 요인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은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2022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제로 팬데믹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해 생산과 소비활동이 크게 제약되었다. 2022년 12월 말부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등급 하향 조정과 전면적 경제 활동 재개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2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빠르면 올해 말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될 가능성도 예상된다.⁴⁵⁾ 이에 따라 소비에서 펜트업 효과(pent-up) 효과⁴⁶⁾가 나타나고,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IMF(2023.1.)는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980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3.0%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⁴⁷⁾ 한국무역협회(2023.2.)⁴⁸⁾는 중국경제가 5.1% 성장할 경우, 실질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16%p, 수출은 0.55%p 각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효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추가 경제상승(0.16%p)은 올해 경제성장률의 10%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2022년 전체 수출물량이 1.8%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물량 증감률의 상승분(0.55%p)은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 증감률의 31%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내 소비심리의 회복은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의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미국은 고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기존의 전망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2년 미국의 성장률은 2.0%(잠정치)⁴⁹⁾로 OECD(1.8%, 2022.11), IMF(1.6%, 2022.10)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미국의 소비

45) 강내영,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 『TRADE FOCUS』 2023년 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2.13.

46)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4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3: Inflation Peaking amid Low Growth」, 2023.1.

48) 강내영, 앞의 글. (2023.2.13.).

49) IMF, WEO, 2023.1

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작년 6월 9.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3년 1월에는 6.4%로 하락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근원 서비스물가의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2022년 말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고용시장에서 2023년 1월 실업률이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경제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6.8%, 가계 연체율은 2.1%로 가계의 양호한 재무여건이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제한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방요인) 세계 경제 침체와 교역량 위축,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강력한 긴축정책,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과 재고 증가, 제조업 생산능력 저하와 가동률 하락,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로 2022년 3.1%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세계 교역량도 2022년 4.7%에 비해 하락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⁵⁰⁾ 2023년 세계 교역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수출의존도⁵¹⁾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⁵²⁾의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이에 따른 고금리는 국내외의 수요를 위축시켜 우리 제조업에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였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75%~5.00% 수준에 이른다. 2022년 말 진정되는 듯 보였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1월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0.5%를 기록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중 미국은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국가인데,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제약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50) 자세한 내용은 본 「2023년 경제전망」 시리즈 1 권 지출부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51)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52) 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35.60%로 미국 7.63%, 영국 14.69% 일본(2020년) 12.72% 보다 높은 수준이나, 독일 38.6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무역의존도(OECD회원국)」)

2023년 중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국내 금리 수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내수를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재고는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재고율도 2022년 중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월에는 120.0%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최근의 높은 재고 수준은 수출 감소와 국내 소매판매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재고는 반도체 부문의 업황 부진에 크게 기인하는데,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5%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높은 재고율은 제조업 생산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전체 반도체 시장(-4.1%)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17.0%)이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3년 중 반도체 산업 업황의 개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는 우리나라 수출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⁵³⁾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국 수출탄력성 하락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에서 ICT 제품군에 대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ICT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우리 수출의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7~2021년 기간 중 중국의 수입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7.4%p), 비메모리반도체(-2.1%p), 무선통신기기 부품(-2.0%p) 등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은 중국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는 아세안(15.2%), 미국(10.5%), 독일(10.1%)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3%대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한

53)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국 소비재 수입의 66.1%가 화장품 단일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하방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GDP의 약 25~30%⁵⁴⁾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2021년 이후 장기침체 국면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철강 등 건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2절 제조업 관련 정책 검토

정부는 「제4차 수출전략회의(2023.2.23.)」에서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하고, 교육부 등 비산업 부처에서 관세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2023년도 수출목표 설정 및 부처별로 수출 및 수주 목표 할당, ②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 및 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12대 신수출동력 확충 등이다. 이러한 행정부의 전방위적 수출지원 정책은 제조업 생산에 장단기적으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2023년 수출 목표치를 작년 말 설정했던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6,85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2023년도 수출지원사업에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공급한다. 예산은 산업부 6,692억원, 중기부 2,597억원, 농식품부 1,472억원, 복지부 1,024억원 등이고,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 260조원, 한국수출입은행 82조원, 신용보증기금 14조원, 기술보증기금 3.3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5조원 등이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의 신수출 동력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은 신성장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초격차 확보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을 2030년까지 1조원의

54) Tianlei Huang, "China's looming property crisis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1.12.

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미국의 IRA 이슈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업황 회복기를 고려하여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⁵⁵⁾ 발급 등 자금난 해소⁵⁶⁾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 기술의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II-5 | 부처별 수출 수주 목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영역	분야	부처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주력 분야	15대 제조업	산업부	5,036	5,325	5,330	(0.1%)
수주전략 산업	원전	산업부	-	20*	2030년 10기	
	방산	산업·국방·방사청	73*	173*	173*	-
	해외건설·플랜트	국토·산업부	306*	310*	350*	(12.9%)
	녹색산업	환경부	-	-	150*	-
수출유망 산업	농수산식품					
	농식품	농식품부	86	88	100	(13.3%)
	수산식품	해수부	28	32	35	(10.8%)
	스마트팜	농식품부	-	1	1.7	(70.0%)
	디지털산업					
	ICT서비스	과기부	149*	155*	178*	(15.3%)
	콘텐츠	문체부	125*	137*	150*	(9.5%)
	에듀테크	교육·산업부	0.4*	0.5*	0.7*	(25.7%)
	바이오헬스					
	의약품·의료기기	복지·산업부	163	164	175	(7.1%)
	화장품	복지부	92	80	98	(23.1%)

주: *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는 수주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2023.2.23.

55)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선수금환급보증(RG)이라고 한다. RG는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56) (대형기업) 한도초과분의 최대 95% 보증 지원, (중소기업) 1,200억원 규모 수출선박금융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은 주력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전력·용수 등 인프라 및 입지지원⁵⁷⁾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⁵⁸⁾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세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9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⁵⁹⁾를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⁶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철강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⁶¹⁾,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⁶²⁾ 대응 강화, 대미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기계 산업은 로봇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⁶³⁾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 및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⁶⁴⁾ 석유화학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 정비⁶⁵⁾를 추진하고, 샤힌(Shaheen: 아랍어 ‘매’) 프로젝트(70억불)⁶⁶⁾ 등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EU·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57)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2023년 신규, 각각 500억원), 제2판교 입주(2023년 2월~) 및 제3판교 테크노밸리(2024년~), 용인 플랫폼시티(2026년~) 추진 등이 예정되고 있다.

58)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1조원 (~2029년),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4,027억원(~2028년) (전력) 4,420억원 (2024~2030년), (차량용) 6,653억원 (2025~2031년), (후공정) 3,580억원 (2025~2031년)

59) IT용 6세대 OLED, IT용 8세대 OLED 및 QD 디스플레이 등

60) OLED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23년 875억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 지원 예타(1조원)

61) 저탄소 연원으로 대체 1,626억원, 고효율 전기로 511억원, 무탄소 연료 전환 279억원

62)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2025~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이다.

63) 로봇제조역량 강화 R&D, 인력양성 지원('23년 1,200억원), 제조, 서비스 로봇 실증 모델 등 지원('23년 600억원),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23.상반기)

64) 제조로봇·서비스로봇 실증모델, 제조로봇 및 SI기술, 서비스로봇 및 플랫폼 등

65) (기술개발) 탄소중립 R&D 사업 지원('23~30년 1,858억원), 그린드컨소시엄 구성 등 (규제정비) 친환경 산업 대비 표준산업분류 개정(~'24) 등

66) 샤힌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에스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세계 최대 규모로 정유·석유화학 스템 크래커(기초유분 생산설비)를 구축해 석유화학 비중을 생산물량 기준 현재의 두 배로 확장한다는 계획

제3장 서비스업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4.2%)보다 1.4p% 낮은 2.8%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3.8	4.2	4.1	4.2	3.0	2.6	2.8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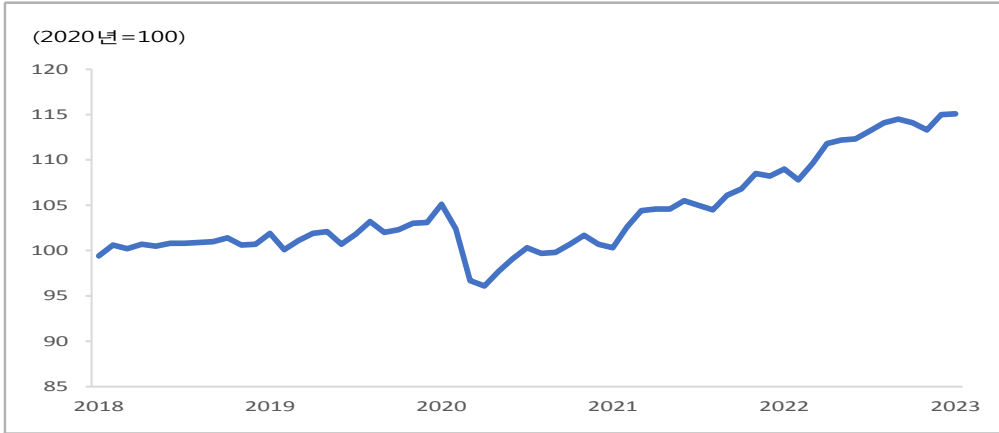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 완화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 세계 경기둔화

가. 동향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2년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고, 하반기에 4.1% 증가하였다. 2022년 하반기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이전 전망(2.4%)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서비스업의 이러한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에 따른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강한 회복세에 따른 현상이다. 더불어, 우리경제의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성장세 또한 2022년 서비스업의 증가세에 힘을 더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6.3%, 7.3% 증가하였다.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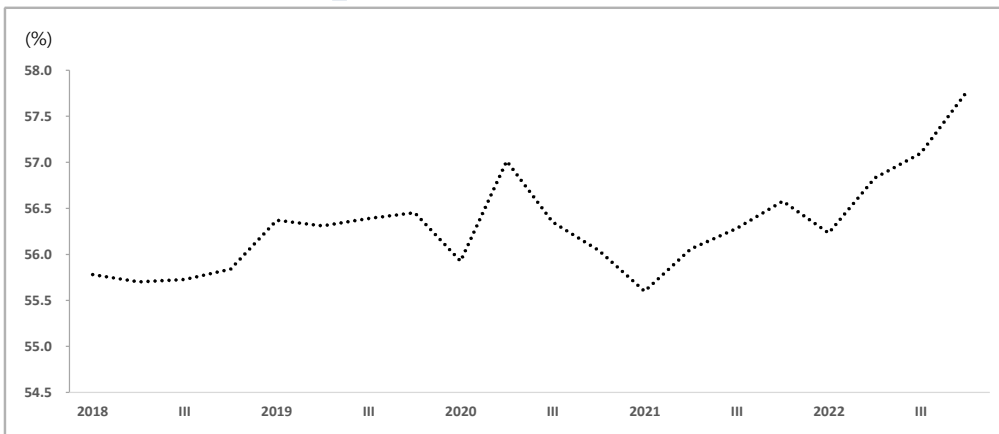
그림 II-16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의 GDP 중 비중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우리경제의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022년 4/4분기에는 60%에 육박하며, 서비스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은 확실한 추세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제조업에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함으로써만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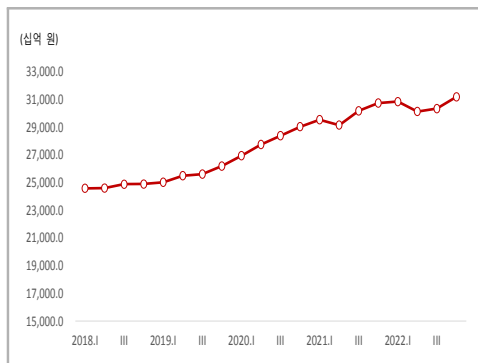
그림 II-17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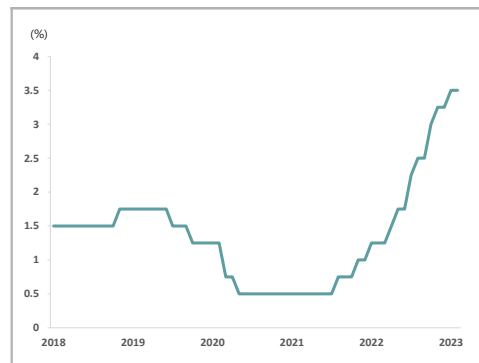
(금융·보험업) 2022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4%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3.9%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1.0%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부터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며 이자이익이 증가하였다. 2022년 미국 고용이 계속 호황인 상황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기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상승세와 더불어 한국의 금리도 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의 생산 또한 높아진 금리로 인하여 그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2.0%, 12.2% 증가하였다. 보험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9.2%, 35.5% 증가하였다.

| 그림 II-18 |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I-19 | 한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022년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7%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8.0%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4.6%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8.8%, 5.8% 증가하였다. 보건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9.9%, 6.4%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5.1%, 3.2%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 2022년 숙박·음식점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8.3%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16.9%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19.7%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지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7.9%, 16.1% 증가하였다. 숙박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25.0%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28.5%, 22.2% 증가하였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6.6%, 15.2% 증가하였다.

(부동산업) 2022년 부동산업 부가가치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0.1%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0.1% 감소하였다. 2022년 금리의 상승으로 부동산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증가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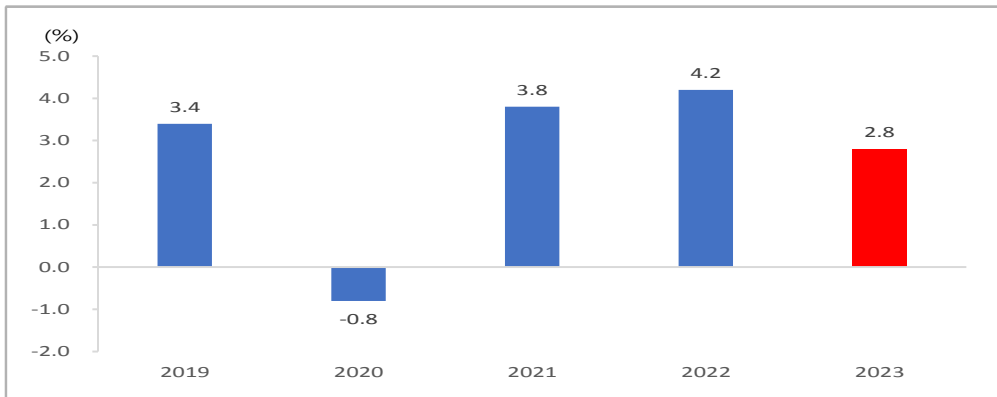
전세계적 경제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가격요인에 의한 경기 상방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높은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인상에 의한 실질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2023년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2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의 전년대비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4.2%)보다 1.4%p 하락한 수치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팬데믹에 의하여 억눌렸던 수요와 가격 요인의 긍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소비심리 위축의 효과가 나타나 증가폭이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6 서비스업 산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3.8	4.2	4.1	4.2	3.0	2.6	2.8

그림 II-20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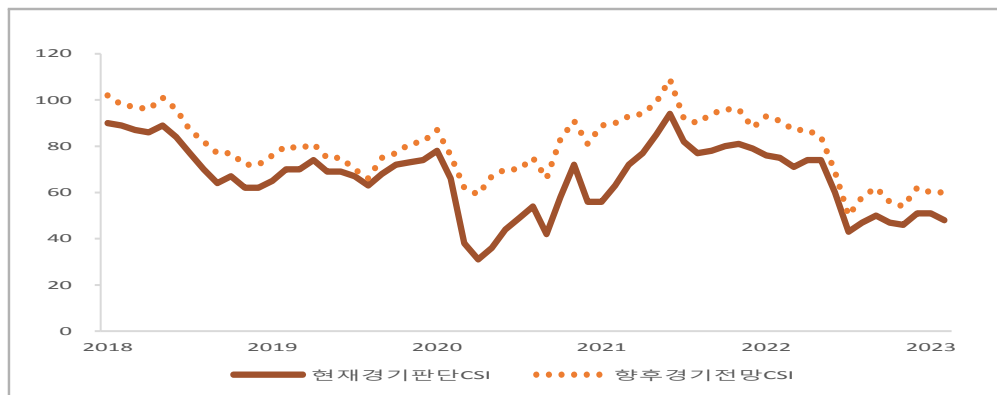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상방요인) 2022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조치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며, 억눌렸던 수요가 시장에서 소비로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 상반기에도 이어져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방요인) 2022년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러한 소비의 회복세는 주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며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시장의 경색 및 소비둔화 영향이 우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 압박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보다는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II-21 |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주: 현재경기판단 소비자 동향 지수(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에 대한 판단을,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며,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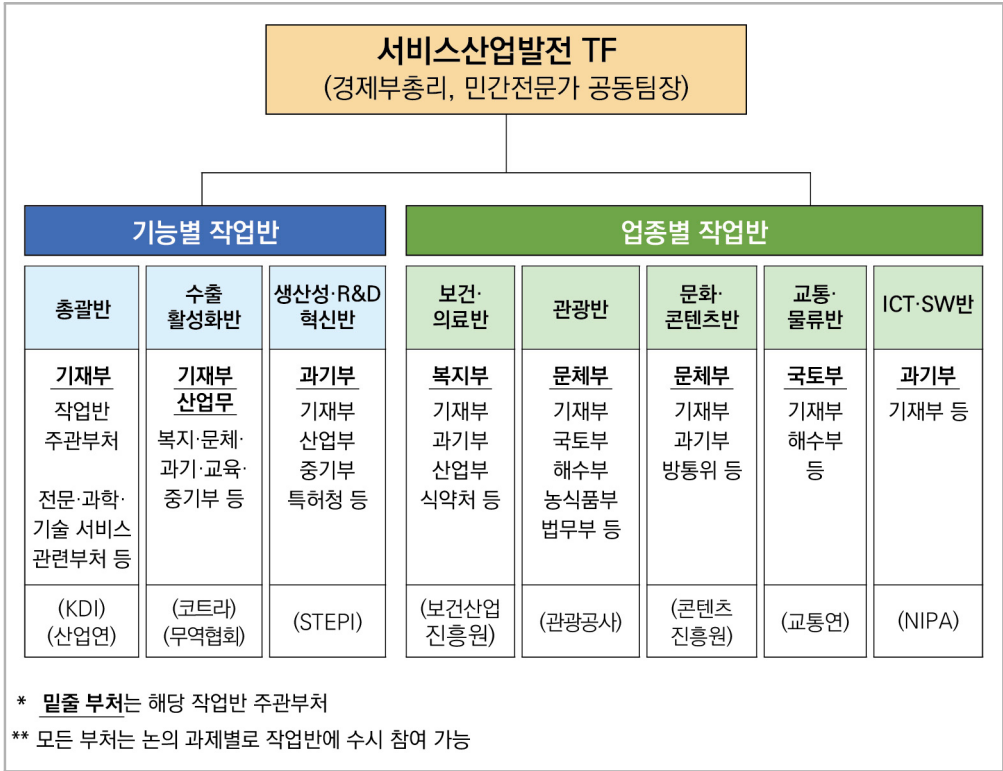
제2절 서비스업 관련 정책 검토

‘경제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계속 커짐에 따라 2011년 전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최초 발의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2011.12.)」의 고도화 및 입법 논의가 추진 중이다. ①기술 발전에 따른 다부처, 다산업 관련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대응, ②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업 양상 변화 반영, ③서비스 교역 확대에 대응한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개념 등장과 시장 개발에 대한 준비와 지원을 위하여 제조업-서비스업 간 및 서비스업 간 교류와 협업 기반 조성, 여러 기관을 걸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전담창구 마련, 서비스 분야 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간의 갈등조정 기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구조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비스 교역 확대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발전, 국가간 이동 증가와 같은 환경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수출을 위한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⁶⁷⁾

67) 관계부처합동,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2022. 11. 18.

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2022년 11월 18일에 발족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협동 협의체로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협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해소, ②서비스 수출 활성화, ③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분야 주제별 7대 규제혁신, ④저생산성, 소외 분야 서비스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발전 TF의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⁶⁸⁾

그림 Ⅱ-22 서비스산업발전 TF의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⁶⁹⁾

68)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출범', 2022. 12. 29.

69)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 2022.12.29.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건설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2.6	-1.4	1.7	0.3	0.1	-0.2	0.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경색
• 건설 관련 원자재 가격 안정화	• 부동산 경기 침체

가. 동향

2022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3%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는 1.7% 증가하였다. 2022년 하반기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이전 전망(-2.0%)보다 큰 수치이다.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 가격의 안정화, 투입요소 공급 교란의 해소, 확장적 정부정책 등으로 인하여 2022년 건설업은 4년간 이어오던 감소세에서 증가로 반등에 성공하였다. 2022년 연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건축허가면적 또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건물건설업) 2022년 건물건설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4.6% 증가하였다. 주거

용 건물건설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2.7% 증가하였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또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2%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6.6% 증가로 전환하였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가 각각 12.0%, 16.3% 증가하면서 건축공사는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다.

(토목건설업) 2022년 토목건설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4% 감소하며 그 감소세는 둔화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하였던 것이 하반기에 2.5% 증가하며 증가로 전환되었다.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7.9% 증가하였다. 토목공사 중 전기기계의 기성이 21.8% 감소하였으나 일반토목과 플랜트의 기성이 각각 0.1%, 31.3% 증가하였다.

(전문건설업) 2022년 전문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0.2% 감소하며 그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9.2% 감소하였다.

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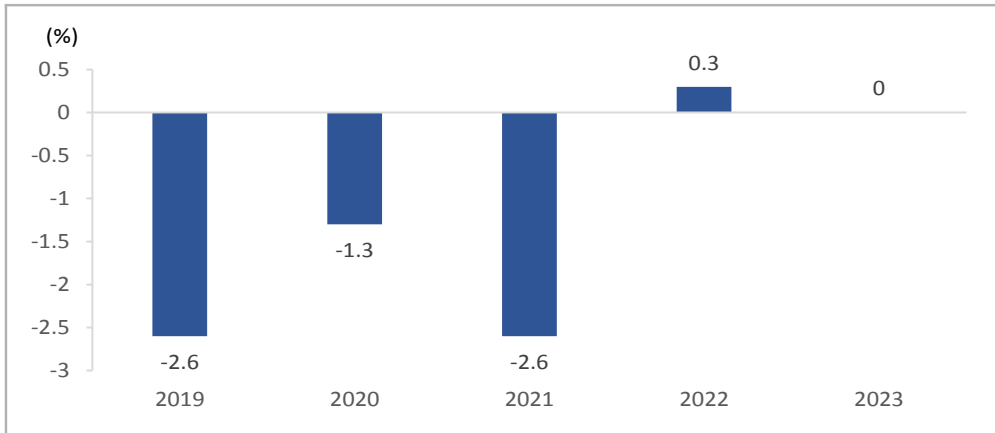
2022년 건설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금융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와 투입요소의 공급교란이 해소되면서 호실적을 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건설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며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경기둔화 조짐이 대두되는 가운데 높은 금리수준 또한 이어지고 있어 건설업의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하방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공급측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2022년 4/4분기부터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한 유동성 문제와 높은 금리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경기 하방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3년 건설업 부가가치는 2022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에는 2022년 하반기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가 0.1% 증가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하방압력의 영향이 더 커짐으로 0.2% 감소하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7 |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2.6	-1.4	1.7	0.3	0.1	-0.2	0.0

그림 II-23 |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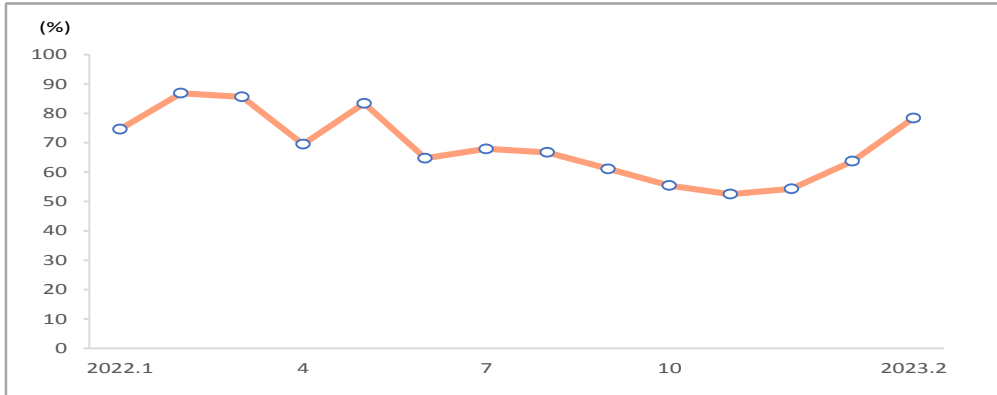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상방요인) 건설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유동성 문제, 높은 금융비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며, 동시에 금융비용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건설업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확장적 정책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노력 또한 건설경기의 둔화세를 저지하고 증가세로의 반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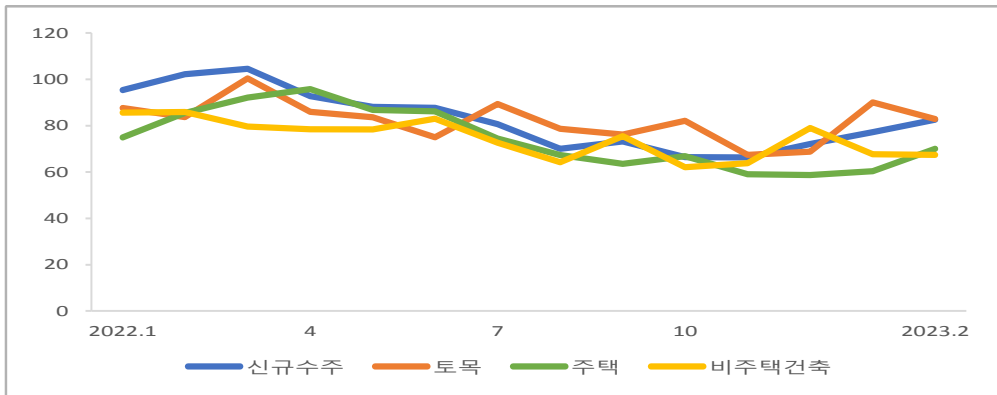
(하방요인) 건설업은 유동성 문제, 높은 금리 등 여러 하방요인이 작용하였음에도 2022년 하반기 1.7%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0.3% 증가하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복합적인 하방압력에 노출되어 있어 2022년 하반기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지속과 높은 금리 기조의 지속은 건설업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24 |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 추이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Ⅱ-25 | 공종별 신규수주 실적지수 추이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2절 2023년 전망

제2절 건설업 관련 정책 검토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관련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11월 23일 「50조 원+ α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며 50조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즉각 지원하였다. 시장에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심각한 경색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자체적인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에는 P F70)-ABCP와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

다.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지원기능, 증권사 보증 PF-ABCP는 금융투자업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결합하여 지원하였다. 증권사 발행 CP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기관들을 통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한 지원을 하였다.⁷¹⁾

건설업 관련 유동성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금융시장 현황 및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조치들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⁷²⁾. 더불어 기획재정부 주최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자금시장 안정화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표 II-8 | 건설시장 안정 주요 대책

(단위: 조원)

주체	대책	총계획	조성규모
정부 (기재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0	4.5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0	8.0
	건설사 보증 PF 매입프로그램	1.0	1.0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3.0	3.0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지원	15.0	15.0
	증권사 보증 PF 매입 프로그램	1.8	1.8
	LCR 정상화 유예조치,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	-
한국은행	적격담보대상 및 대상증권 확대	-	-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 매입	6.0	2.5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 RP 매입	2.5	
금융위원회 (5대 금융지주)	시장유동성 공급 확대(기업 자금공급 확대, 채권 매입)	73	
	채권(증권) 시장안정펀드 참여	12	
	지주그룹 내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 강화	10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70) 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의미

71)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2022.11.11.).

72) 금융위원회,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 개최'(2022.10.23.);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2022.11.11.);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2022.11.18.); 기획재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2022.11.28.)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1.9%)보다 0.3%p 높은 2.2% 증가할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4.0	2.2	1.6	1.9	1.9	2.6	2.2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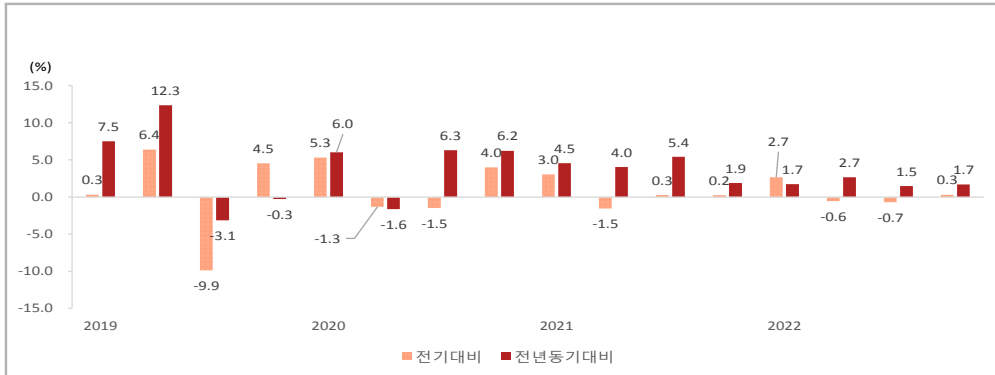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수요증가 전망	• 세계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제조업의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
•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대중국 수출 여건의 회복	• 에너지 요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물가 상승
	• 서비스 수요 감소로 서비스업의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
	• LNG 가격 상승으로 발전용 가스 수요 감소

가. 동향

2022년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1%p 감소한 1.9% 증가하였다. 2022년 하반기 중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업을 중심으로 1.6% 증가하였다. 1/4분기에는 전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각각 0.6%, 0.7% 감소한 후 4/4분기에는 0.3% 증가하였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4/4분기까지 각각 1.7%, 2.7%, 1.5%, 1.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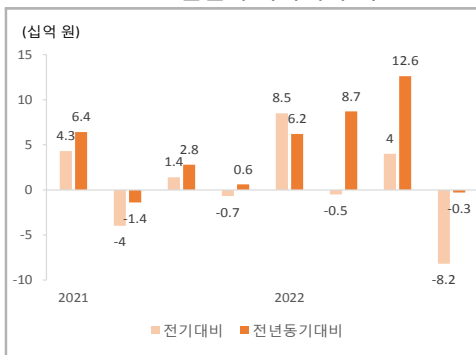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 그림 II-26 | 전기·가스·수도사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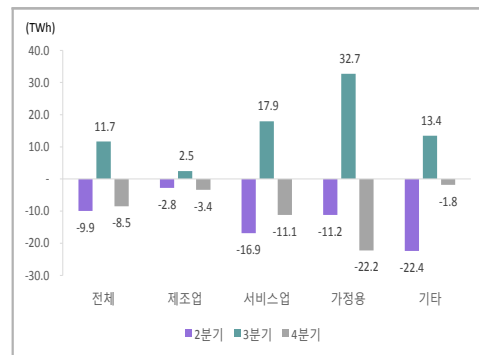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전기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4분기에 전기대비 8.5% 증가에서 2/4분기에 계절적 요인에 의해 0.5% 감소하였으나 3/4분기에 4.0% 증가하였다. 이는 서비스업과 가정용을 중심으로 전력판매량이 증가한 데 기 인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소비가 2/4분기 2.9%, 3/4분기 1.7%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용 전력판매량이 3/4분기에 전기대비 17.9% 증가하였다. 또 한 가정의 냉방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정용 전력판매량이 3/4분기에 전기대비 32.7% 증가하였다. 다만, 4/4분기 전기업의 실질부가가치의 증가율은 제조업의 수출둔화, 민간소비 감소,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8.2% 감소하였다. 참고로 4/4분기 전력판 매량은 132TWh로, 전기대비 8.5% 감소하였는데, 제조업이 65TWh로 3.4%, 서비 스업이 37TWh로 11.1%, 가정용이 18TWh로 22.2% 줄어 들었다.

| 그림 II-27 | 전기·가스·수도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주: 실질GDP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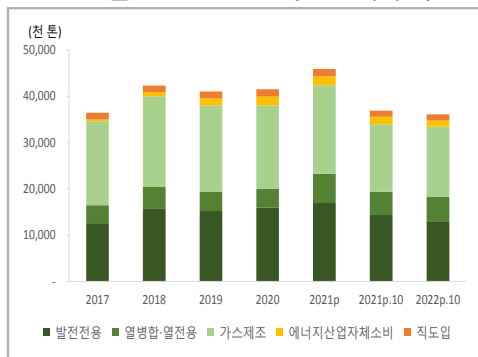
| 그림 II-28 | 용도별 전력판매량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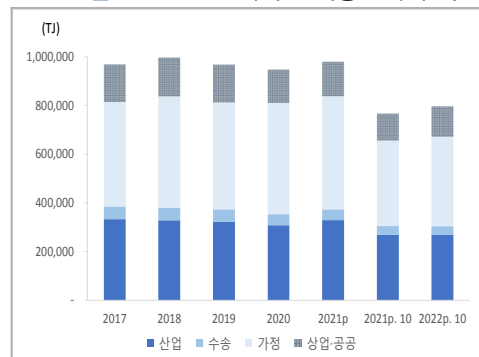
(가스업)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4분기에 전기대비 3.9%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1.4% 증가한 이후 3/4분기에 3.2% 감소하였다. 3/4분기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 소비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발전용 가스 소비가 감소한 것은 LNG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발전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의 발전용 소비는 2022년 1~10월 동안 누계 12,98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하였다.⁷³⁾ 이에 반해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2022년 2/4분기, 3/4분기에 각각 30.8%, 29.5%로 전년동기대비 3.4%p, 4.9%p 증가하였다. 도시가스 소비에서 산업용 가스 소비가 감소한 것은 석유화학업에서 설비 보수 및 수요 둔화, 반도체와 1차 금속 부문에서 생산 둔화와 태풍(힌남노) 피해로 인한 철강 공장 가동 중단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4/4분기 가스업 실질 부가가치가 10.1%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도시가스 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파로 인해 가정용과 상업·공공용 난방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⁷⁴⁾ 가정용과 상업·공공용 도시가스 소비는 2022년 1~10월 동안 각각 누계 367,356TJ⁷⁵⁾, 124,851TJ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0%, 11.9% 증가하였다.

그림 II-29 | 천연가스 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II-30 | 도시가스 최종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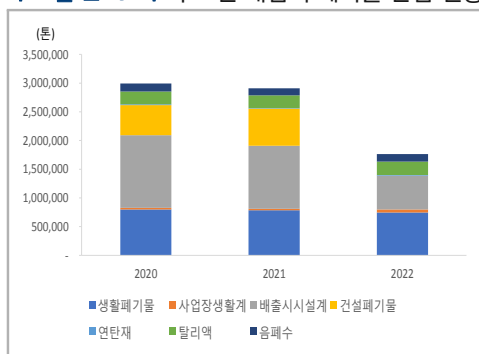
7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3.1.

74)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년 10월 가스 수급 동향,” 2023.2.1

75) 1J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일의 크기를 말하며, 1W의 전력을 1초에 소비하는 일의 양을 의미한다. TJ는 1012J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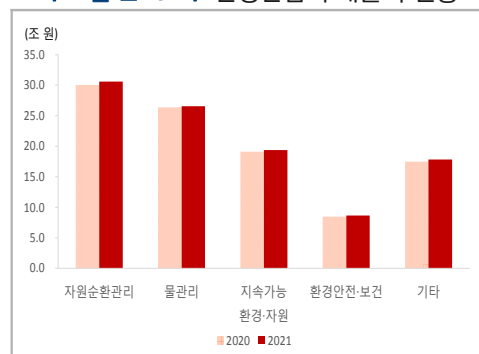
(수도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하 환경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4분기에 전기대비 1.0%, 2/4분기에 1.5%, 3/4분기에 5.2% 감소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도 1/4분기에 0.5%, 2/4분기에 3.4%, 3/4분기에 5.5% 감소하였다. 이는 2022년부터 대형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반입 금지, 배달음식의 수요 감소, 자동차 신차구매 감소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문의 생산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특히 2022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폐기물은 중간 처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 금지 등에 따라 전년대비 39.3% 감소하였다. 다만, 환경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4/4분기에는 기저효과로 6.7% 증가하였다. 참고로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2021년 기준 103조로, 자원순환관리 30.6조원, 물관리 26.5조원, 지속가능환경 및 자원 19.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31 |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현황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림 II-32 | 환경산업의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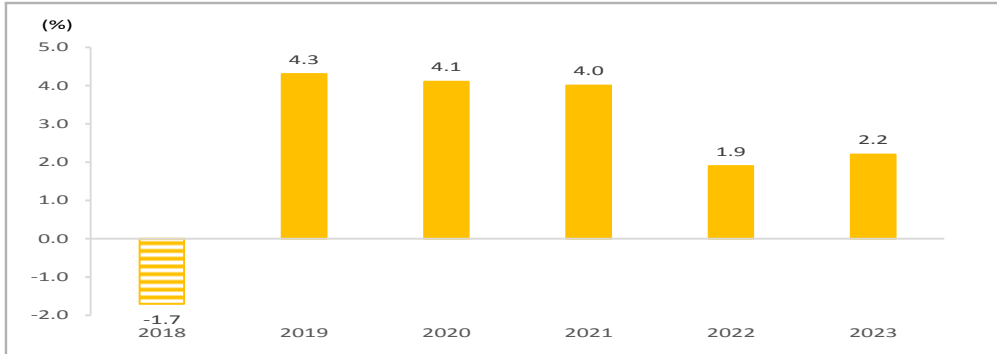


자료: 「환경산업협회」

나. 전망

2023년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지난 전망치(2.1%, 2022년 10월)에 비해 0.1%p 높은 2.2% 증가할 전망이다. 실질 부가가치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9%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나 하반기에 경기회복과 더불어 2.6%로 증가할 전망이다.

| 그림 II-33 | 전기·가스·수도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하방요인)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둔화와 반도체⁷⁶⁾, 화학⁷⁷⁾ 산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제조업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민간소비는 2.4%로 전년대비 1.9%p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도 2.8%로, 전년대비 1.4%p 줄어든 전망이다.

한편 비록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2022년 12월 7일 이후 해제되었지만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의 수요 급감 및 단가 하락⁷⁸⁾,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 상승 및 단가 하락 등으로 2023년 수출이 2.7%로 지난 전망치(4.1%, 2022년 10월)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발전용 가스 수요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2018년 각각 134TWh (23.4%), 239TWh (41.9%), 153TWh (26.8%), 36TWh (6.2%)에서 2030년에 202TWh (32.4%), 123TWh (19.7%), 142TWh (22.9%), 134TWh (21.6%)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급등한 에너지 원가 인상분이 올해 gas와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전기와 가스의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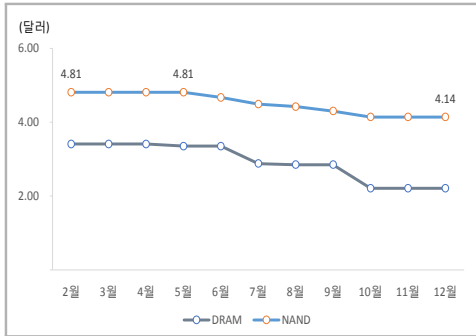
76) 반도체 수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022년 8월 이후 -7.8%로 전환한 후 감소 폭이 2023년 1월에는 -44.5%로 확대되었다.

77) 화학 수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022년 6월 이후 -0.5%로 전환한 후 감소 폭이 2023년 1월에는 -25.0%로 확대되었다.

78) 2022년 1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 절반을 차지하는 DRAM의 경우 단가가 2월 3.41달러에서 12월 2.21달러로 35.0%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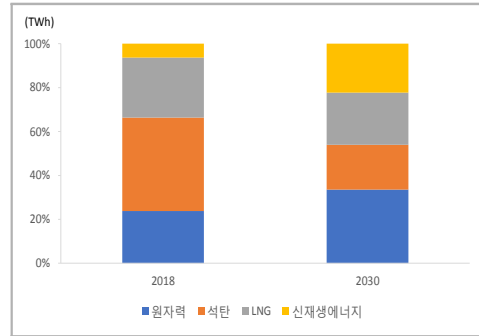
79) 전기요금의 인상이 가격탄력성을 높여 전력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용규,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분석,” 전자저널, 2020.7)

Ⅱ-34 | 메모리 반도체 단가 추이



주: 고정거래가격 기준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KISA)

Ⅱ-35 | 에너지원별 발전량 구성 비중



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상방요인)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및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대중국 수출여건의 회복이 전기·가스·수도사업 실질 부가가치의 상방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온 현상에 따른 냉방수요의 증가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23년 여름에도 고기압의 영향에 따른 낮 동안 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평균 기온이 평년(23.4~24.0℃)을 상회할 확률이 50%나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⁸⁰⁾ 참고로 2022년 6~8월 평균 기온은 24.5℃로, 평년(23.7℃)을 0.8℃ 상회하였다.⁸¹⁾ 2022년 6~8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기간의 전력판매량 증가율(2.5%)을 상회하는 수치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의 해제에 따른 대중국 수출 여건의 회복 정도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전망치 보다 증가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을 전환한 이후 맞은 춘절 연휴(22일) 직후 코로나19 감염률이 85%를 상회하였으나 2월 말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⁸²⁾ 중국 내 소비 회복세는 대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0) 기상청, “2023년 여름 기후전망,” 2023.2.23.

81) 기상청 보도자료, “올 여름철, 이른 열대야에 지역 간 강수량 차이 커,” 2022.9.7.

82) 김기봉, “중국, 코로나 확산세 정점 통과,” 「Brief」, 국제금융센터, 2023.1.26.

제2절 전기·가스·수도사업 관련 정책 검토

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에 전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한전의 영업손실이 증가하였다. 주택용 가스요금이 2022년 4차례에 걸쳐 14.22원/MJ⁸³⁾에서 19.69원/MJ로 38.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의 미수금은 2021년 1.8조원에서 2022년 8.6조원으로 확대되었다.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 규모도 2022년 말 기준 약 40조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23년에 전기와 가스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행할 계획이다.⁸⁴⁾ 참고로 전기요금은 2023년 1월에 +13.1원/kWh(9.5%) 인상되었으며, 누적적자를 고려할 때 2026년까지 총요금 인상요인은 2022년 말 기준 +50원/kWh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은 전기와 가스 수요를 감소시켜 전기업과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⁸⁵⁾

한편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한 주거시설에 대한 난방효율화를 추진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 냉장고에 문닫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며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⁸⁶⁾을 보급 및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와 가스를 절약한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83) 1J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일의 크기를 말하며, 1W의 전력을 1초에 소비하는 일의 양을 의미한다. MJ는 106 J를 의미한다.

84)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2022.9.30),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2023.2.15)

85)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과 자료에 따라 상이하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그 정도가 용도에 있어 상이한데, 박우영·박명덕(2017)에 따르면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총생산과 전력수요를 더 감소시키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산	인플레이션율	전력수요
주택용 전력요금 10% 인상	-0.016%	0.032%	-0.287%
산업용 전력요금 10% 인상	-0.089%	0.014%	-0.947%

86) BEMS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의미(한국에너지공단 참조)

| 표 II-9 | 주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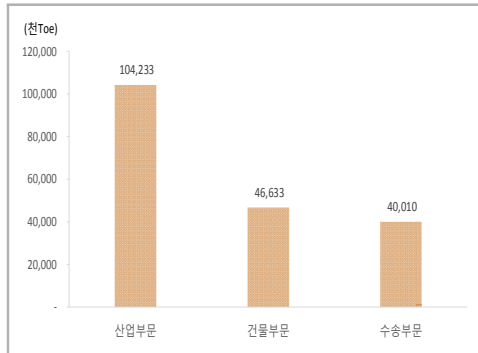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주체	2023년 예산
저소득층 효율개선 지원강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가지원	저소득층 난방지원 대상 3,000가구	한국에너지재단	960억원
저소득 가구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약 200만 가구	한전(전력기금)	139억원
저소득 가구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전국 취약계층 약 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1,536개	에너지재단 (전력기금)	105억원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 컨설팅			
에너지 진단 및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 제시	노후 아파트단지· 고시원 등 1,000개	에너지공단	84억원
지자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용자	10년 이상 노후건물	서울시	120억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주거용 및 비주거용 민간 건축물	국토부	1,910억원
ICT 기반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확대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 제공	시범사업(서울 마곡, 경기화성, 경남, 강원) → 타 지역 확대	에너지공단	7억원
냉장고 문 달기	대형마트, 편의점 등	한전	59억원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보급 확대	제로에너지빌딩 예비인증 4~5등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축물	국토부	14억원
에너지 캐쉬백			
전기 캐쉬백 가입방식 간소화 및 지급절차 개선	現 2,400단지/4.6만세대 → 4,000단지/180만세대	한전 (전력기금)	25.6억원
가스 가정용 캐쉬백 매년冬 시행 및 지원세대 확대	現 16만 → 80만 세대	가스공사	11.4억원 ¹⁾

주: 1) 가스공사 캐쉬백 사업예산은 2021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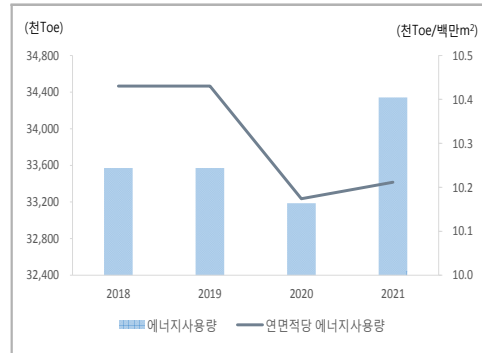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전기업과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문에서 가스와 전기의 사용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각각 26.9%, 71.2%로 높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 부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건물 부문에서 연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Ⅰ 그림 II-36 Ⅰ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Ⅰ 그림 II-37 Ⅰ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23 경제전망 II

생산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주력 산업 국제 비교

제1장 반도체

제2장 자동차

제3장 화학

제4장 철강

-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4.1% 감소할 전망**
 -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성장 전망치 하향
 - 2022년에 이어 중국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부진을 초래
- **2023년 메모리 반도체는 17.0% 감소하며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을 주도할 전망**

세계반도체 무역통계(WSTS: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01억 달러로 2021년의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26.2%의 높은 성장세의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이 4.4%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수정하였다.⁸⁷⁾⁸⁸⁾ 이에 대해 WSTS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약해짐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성장 전망치를 낮추었다는 설명이다. 202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주 지역 17.0%, 유럽 12.6%, 일본 10.0%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진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저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3년에는 4.1%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시장 규모가 2022년 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2022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에도 중국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부진을 초래할 전망이다.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87)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2022.11.29.

88) WSTS는 당초 전망(2022.8.22.)에서는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3개월 만에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아이티(IT) 조사업체인 가트너(2022.11.28.)도 세계반도체 시장이 2022년 4.0% 성장한 뒤 2023년에는 3.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트너는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PC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주도 시장과 기업 주도 시장으로 양극화되어 있는데, 주로 소비자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가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소비자 주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여행·레저 등을 스마트폰·컴퓨터 같은 기술 제품을 보다 선호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기업 주도 시장은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프라 강화나 사업 확장 계획, 디지털화 전략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Ⅰ 표 Ⅲ-1 Ⅰ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세계	555,893	580,126	556,568	26.2	4.4	-4.1
미국	121,481	142,138	143,278	27.4	17.0	0.8
유럽	47,757	53,774	54,006	27.3	12.6	0.4
일본	43,687	48,064	48,280	19.8	10.0	0.4
아시아 태평양	342,967	336,151	311,005	26.5	-2.0	-7.5

자료: WSTS, 2022.11.29.

집적회로(IC) 분야는 2022년에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인데, 2021년 대비 아날로그(20.8%), 로직(14.5%) 분야는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전년대비 1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도 메모리 반도체는 17.0% 감소하며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가트너도 20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6.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Ⅲ-2 | 세계 반도체 집적회로(IC) 분야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IC	463,002	479,988	453,041	28.2	3.7	-5.6
Analog	74,105	89,554	90,952	33.1	20.8	1.6
Micro	80,221	78,790	75,273	15.1	-1.8	-4.5
Logic	154,837	177,238	175,191	30.8	14.5	-1.2
Memory	153,838	134,407	111,624	30.9	-12.6	-17.0

자료: WSTS, 2022.11.29.

2023년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추격 등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분야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58%이며, 중국기업은 미국의 중국 제재 강화 등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이 Entity List⁸⁹⁾에 추가되면서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도입 등이 제한되어 기술력 제고, 생산능력 확대, 해외진출 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D램은 한중간 기술격차가 상당하며, 낸드플래시는 한중간 기술격차는 좁혀졌으나 미국의 제재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33.9%, SK하이닉스 13.2%, YMTC 2.3% 순이다. YMTC는 미국 반도체 장비가 배제된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 중이나 중국의 장비 기술 수준이 낮아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21년 3%로 메모리반도체 대비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세부 분야별 한국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로직 5.7%, 아날로그 1.3%, 마이크로컴포넌트 0.4%이다.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지배적인 사업자로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 중이나 생산능력 격차 등으로 시장점유율 축소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TSMC 56%, 삼성전자 16%, UMC 7%, 글로벌 파운드리 6%, SMIC 5% 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미국 상무부의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있어 미세공정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장이 제약될 전망이다.

89) 블랙리스트라고도 불리며 미국의 안보 또는 대외정책 이해에 반하는 기업의 목록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가 반도체에서 반도체 장비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범용 반도체 제조 장비로, 미국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망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희토류 기술 등의 수출통제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전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⁹⁰⁾

90) 박소희,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희토류 등 기술 수출 통제로 대응하나,”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93, 2023.2.

• 2023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세계경기 둔화, 지속적 공급망 문제 등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지연수요(delayed demand), 중국의 경기회복 등 각국 경기의 회복세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 기저효과로 인하여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성장세를 보일 것임

• 세계 자동차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기자동차의 수요의 성장세는 뚜렷

2023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세계경기 둔화, 지속되는 공급망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최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⁹¹⁾ 그러나 자동차 시장 전망 기관들마다 시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전망 수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침체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등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자동차 시장수요에 대한 전망을 쉽게 내지는 못하고 있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⁹²⁾나 S&P 글로벌 모빌리티(S&P Global Mobility)⁹³⁾ 등은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⁹⁴⁾은 2023년 자동차시장 규모를 2022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91) 한국자동차연구원,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2022.11.21

92) Cox Automotive, 'Cox Automotive Forecast: Improved Inventory Levels, Higher Fleet Sales Expected to Support Improving January U.S. Auto Sales', 2023.1.

93) S&P Global Mobility, 'S&P Global Mobility forecasts 83.6M units in 2023 as light vehicle market cautiously recovers',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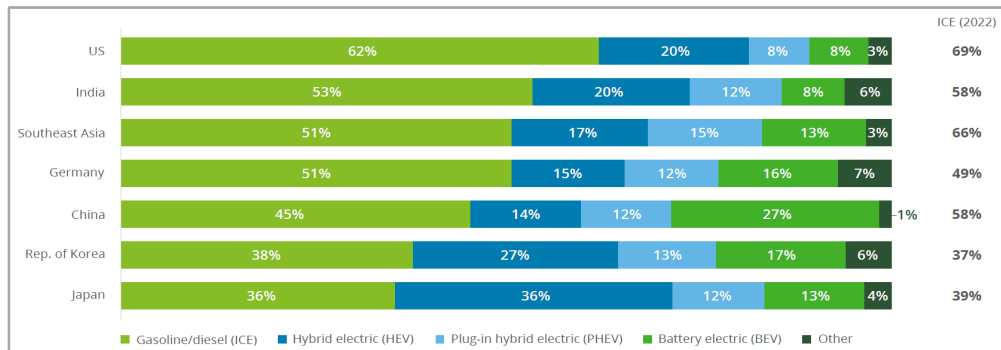
94)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Automotive Outlook 2023'

그러나 자동차시장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의 수요증가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세계 전기자동차(BEV, PHEV, FCEV⁹⁵⁾) 수요는 2022년 900만 대를 넘어서고 2023년에는 1,200만 대 수준으로 증가 후 2025년에는 2,0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국의 친환경 정책들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책이 변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국가들은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는 촉진하되, 고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clean vehicle) 자동차 구매 시 7,500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지원에 대한 업체 당 200,000대 제한을 없애기로 하였다. 중국은 2023년 말까지 새로운 에너지 차량(New Energy Vehicles, NEV)들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금 지급을 연장했다. 프랑스는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EV 리스(leasing)에 대한 지원금 체계를 계획 중에 있다. 독일은 가격에 따라 BEV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PHEV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고가 EV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수요는 증가세이지만, 각국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속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의 준비 정도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음 자동차 구매 시 선택하고자 하는 동력기관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Ⅲ-1 | 다음 구매 자동차의 동력기관 선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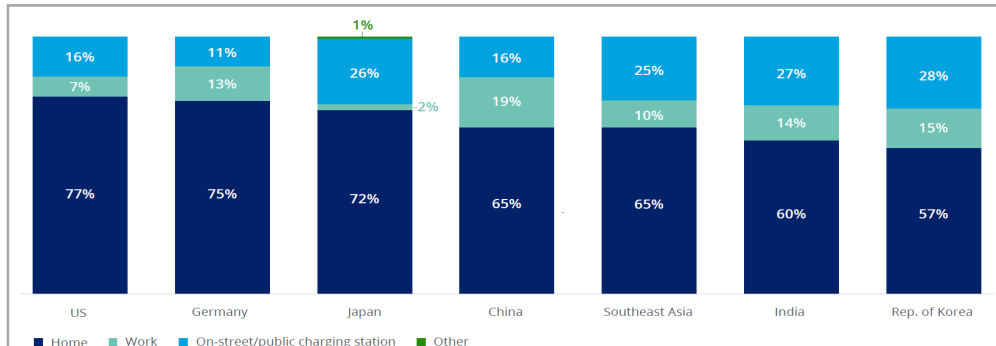


자료: Deloitte⁹⁶⁾

95) BEV: Battery-powered Electric Vehicle, 배터리(전지) 전기자동차
PHEV: Plug-in Hybrid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구매결정에 있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여 아직도 연료공급과 운행거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변화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에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Ⅰ 그림 Ⅲ-2 Ⅰ 주로 활용할 충전 지점



자료: Deloitte⁹⁷⁾

2023년 세계자동차업계의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내업체의 내수판매, 수출, 생산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의 경우 전년대비 0.5%, 내수 중 국산차는 0.3%, 수입차는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 수출대상국들의 한국 수출 차량에 대한 정책 적용에 따라 실적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최대 4.2%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의 경우 내수와 수출 부진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전년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Ⅰ 표 Ⅲ-3 Ⅰ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과 전망

(단위: 만대, 전년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내수	175	-10.1	167	-4.7	166	-0.5
국산	144	-10.6	139	-3.6	138	-0.3
수입	31	-7.9	28	-10.8	27	-1.3
수출	204	8.2	220	7.7	210	-4.2
생산	346	-1.3	360	3.9	349	-3.0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96) Deloitte, '2023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20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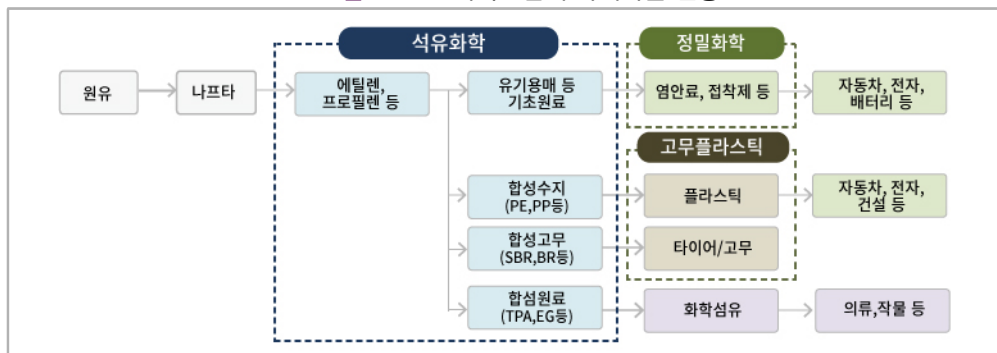
97) Deloitte, '2023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2023.1.

• 2023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약 5.2조로 전년대비 약 4.0% 감소할 전망

- 경기침체에 따른 전방산업의 부진, 긴축적 통화정책 및 미달러 강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기저효과 등에 기인
- 다만, 2023년 유가가 전년에 비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세계 석유 수요와 OPEC+ 감산 규모가 예측치보다 많을 경우 유가 상승으로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섬유 등 주력산업의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⁹⁸⁾와 기술을 요구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세계경기와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등으로 구분되며 제품에 따라 기초화학품, 의약품, 특산품, 농약, 소비자 제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화학품에는 플라스틱 수지, 석유화학, 합성고무 등이, 특수화학 분야에는 접착제, 밀봉제, 코팅제 등이 포함된다.

Ⅲ 그림 Ⅲ-3 | 화학산업의 가치사슬 현황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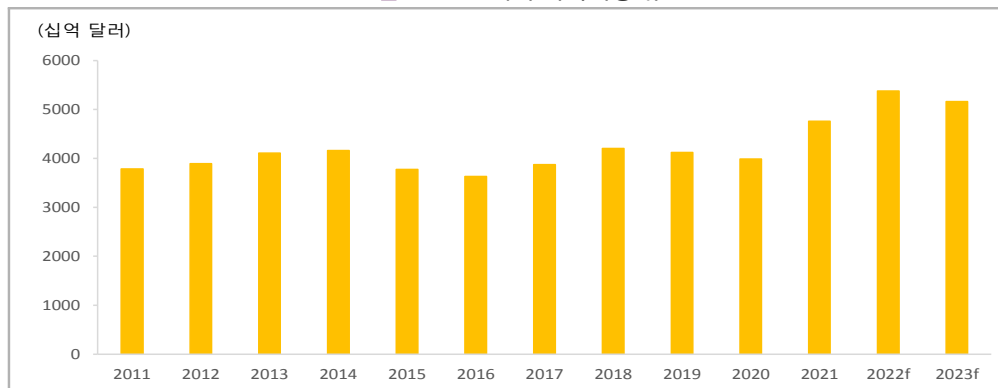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98) 석유화학단지 한 개를 건설하기 위해 15~20억 달러(약 2,000억 원)가 필요하다.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1~2022년 동안 연평균 3.2% 성장해 왔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와 저금리 하에서 신증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등에 기인한다. 다만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유가가 하락하면서 2020년에 3.2% 감소하였다. 백신 접종 이후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2022년 세계 화학시장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2023년에 약 5.2조 달러로 전년대비 약 4.0%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전방산업의 부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및 미달러 강세,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급증했던 비대면, 헬스케어, ICT 관련 중간재 수요의 감소,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2021~2022년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다.⁹⁹⁾ 다만 2023년 세계 석유 수요와 OPEC+ 석유 감산 규모가 전망치¹⁰⁰⁾보다 많을 경우 유가가 상승하면서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

Ⅲ-4 | 세계 화학시장 규모



주: 2011~2021년 실적치, 2022~2023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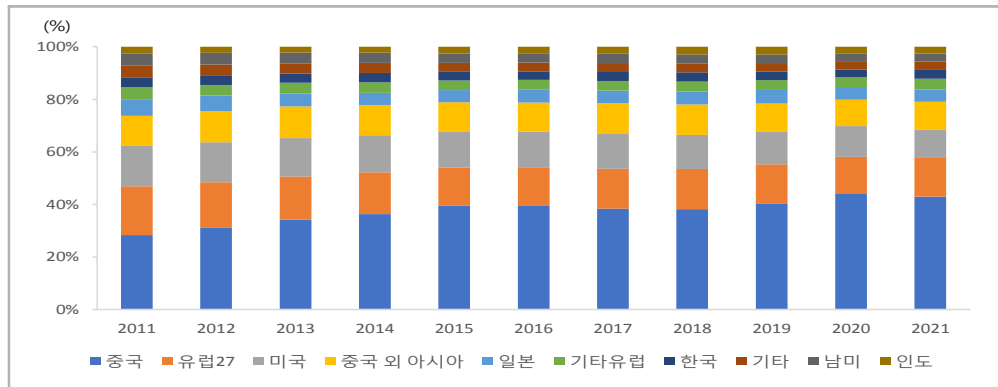
자료: cefic, 국회예산정책처

99) 산업연구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22.11, 77~89쪽.

100)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두바이 기준)가 2023년에 배럴당 85.46달러로 전년(배럴당 96.32달러)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며 2분기 이후 소폭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https://www.keei.re.kr/main.nsf/index.html>, 접속: 2023.3.18.>

국가별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43.0%로 가장 높고, 유로 지역 14.7%, 미국 10.9%, 중국 외 아시아 국가 10.5%, 일본 4.7%, 한국 3.3%의 순이다.

Ⅰ 그림 Ⅲ-5 Ⅰ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



자료: cefic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화학시장은 생산기술의 범용성, 원자재와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¹⁰¹⁾ 중국의 화학시장 규모는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72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45억 달러로 두 배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가령, 중국은 석유유분을 정제하여 만든 화학산업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중국의 에틸렌 내수 수요는 2021년 기준 5,832만톤이나 생산량은 2,826만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고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2021년 기준 954만톤(46.1%)으로 가장 높고, 일본(25.6%), 미국(12.1%) 순이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1년 기준 4,368만톤으로, 미국 생산량(4,427만톤)과 비슷한 수준이고, 2022년 자국 기업에 의한 증설물량이 565만톤에 이르며¹⁰²⁾ 향후 3년간 완공될 에틸렌 증설설비가 1,755만톤에 달한다. 이 밖에도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에틸렌 증설이 진행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연관산업의 집적화와 고도화가 병행되고 있다.¹⁰³⁾ 한편 중국의 화학산업은

101) Hong. Sheng, Yifan Jie, Xiaosong Li, and Nathan Liu, "China's Chemical Industry: New strategies for a new era," McKinsey & Company, Mar. 12, 2019.

102) 참고로 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1년 기준 1,095만톤으로 사우디(1,586만톤) 다음으로 높다.

103) "중국, 에틸렌 설비증설 가속화,"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13.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투자주도 성장에서 소비주도 성장으로 변화하면서 정밀화학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항공 우주, 전자,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도의 화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화학분야 R&D 지출은 2017년 기준으로 146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¹⁰⁴⁾

유로지역의 화학시장 규모는 2011년 7,049억 달러에서 2016년 5,28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7,0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로지역의 비중은 2011년에서 18.6%에서 2021년 1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성숙, 통화절상과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규제 및 세금 부담,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화학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 2021년 기준 약 2,347억 달러의 화학제품을 수출했다. 이 중 전문화학품과 소비자화학품의 비중이 48.1%를 차지하며, 약 49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전체 매출에서 석유화학 26%, 유도체 20%, 기초화학 13%, 특수화학 28%, 소비자화학이 14%를 차지한다.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독일이 28.9%, 프랑스 17.4%, 이탈리아 10.0%, 네덜란드 9.9%, 스페인 8.3%의 순이다.

미국의 화학시장 규모는 2011년 5,806억 달러에서 2021년 5,169 억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화학시장 비중은 2011년 15.3%에서 2021년 10.9%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화학제품 수출국이다. 2021년 미국의 화학제품 수출액은 약 1,530억 달러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다. 한편 미국은 화학물질 수입 수요도 커서 2021년 기준 약 1,270억 달러의 화학제품을 수입하였다. 미국은 화학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7년과 2021년 기준 각각 121억 달러, 114억 달러 투자하였다.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새로운 화학 및 제약 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화학시장 규모는 2011년 1,406억 달러에서 2021년 1,57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화학시장에서 2021년 기준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화학제

104)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Chemical industry in China – statistics & facts, Statista, Feb 9, 2023.
 <https://www.statista.com/topics/8167/chemical-industry-in-china/#topicHeader__wrapper, 접속: 2023. 3. 17.>

품 수출은 2021년 기준으로 1,015억 달러이며 수입은 655억 달러였다. 수출국은 중국(35.7%), 미국(7.6%), 베트남(5.4%), 일본(5.1%) 순이며, 수입국은 중국(29.8%), 일본(16.2%), 미국(13.8%)의 순이다. 수출액 중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의 비중이 각각 54.3%, 36.8%인 반면, 수입액 중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의 비중은 각각 22.4%, 57.3%로 나타났다.

- 2023년 세계 철강 수요는 2022년 대비 1.0% 증가
 - 중국의 철강 수요는 2022년 수준을 유지, EU는 산업 활동 둔화로 위축될 전망
 - 인도·아세안 등의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인프라 투자 수요에 따라 6%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조강생산 능력은 18억 2,000만톤으로 전년대비 1.4% 감소
 - 한국의 조강생산량은 6,600만 톤 내외로 전망
-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는 감소, 조선 부문의 철강 수요는 증가

한국철강협회¹⁰⁵⁾는 세계철강협회(WSA)와 WSD(World Steel Dynamics)의 전망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세계 철강 수요는 2022년 대비 1.0% 증가하고, 조강생산 능력은 18.2억 톤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2022년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신규 인프라 투자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철강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U는 최근 고물가, 에너지 공급 부족, 공급망 차질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이 2023년에도 지속되면서 철강 수요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경우 연준의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제조업 생산 부진, 민간 소비, 주택시장 투자 약화, 수출 감소 등 경제는 위축되겠지만, 자동차 부문의 공급망 제약 완화와 인프라 투자로 인해 철강 수요는 2022년에 비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인도·아세안 등의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인프라 투자 수요에 힘입어 2023년에는 6%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고, 일본은 공급망 제약 완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2023년에도 철강 수요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105) 홍승민, “2023년 국내 철강재 수급 전망,” 「철강보」, 제49권 제1호 통권 565호, 한국철강협회, 2023.1.

Ⅰ 표 Ⅲ-4 Ⅰ 글로벌 철강 수요

(단위: 백만톤, 전년대비 %)

	2022f				2023f			
	10월 전망	전년 대비	4월 전망 대비 차이		10월 전망	전년 대비	4월 전망 대비 차이	
			백만톤	%p			백만톤	%p
세계	1,796.7	-2.3	-43.5	-2.6	1,814.7	1.0	-66.7	-1.2
중국	914.0	-4.0	-38.1	-4.0	914.0	0.0	-47.6	-1.0
인도	112.7	6.1	-1.3	-1.3	120.3	6.7	-0.6	0.7
미국	99.2	2.1	-0.6	-0.6	100.8	1.6	-1.4	-0.8
일본	57.5	0.2	-0.7	-1.0	58.5	1.7	-0.3	0.7
한국	54.6	-2.5	-1.6	-3.7	54.6	0.0	-2.2	-1.0
EU27+UK	158.9	-3.5	-2.5	-2.2	156.9	-1.3	-11.0	-5.3
아세안(5)	76.8	5.8	0.7	1.0	81.4	6.0	0.6	-0.1

자료: Worldsteel, 2022.10.

글로벌 철강 수요 정체로 공급측면에서는 부진이 예상되는데, WSD(2022.11.)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조강생산은 2022년 대비 1.4% 감소한 18.2억 톤으로 2022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2년 1~11월 국내 조강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2022년 한국 조강생산량은 WSD 전망치 대비 약 100만 톤 낮은 6,600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Ⅰ 표 Ⅲ-5 Ⅰ 조강 생산 전망

(단위: 백만톤, 전년대비 %)

	2022f		2023f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세계	1,848.0	-4.7	1,822.0	-1.4
중국	1,010.0	-2.1	990.0	-1.9
중국 외	842.0	-7.3	832.1	-1.1
인도	122.7	3.8	121.9	-0.7
일본	89.1	-7.5	87.6	-1.7
미국	81.4	-5.1	83.7	2.7
한국	67.0	-4.8	68.6	2.4

자료: Worldsteel, 2022.11.

2023년 우리나라 철강재 수급은 건설 등 전방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태풍 수해 등 공급 차질의 기저효과로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전년대비 증가할 것이나,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7~2019년 및 2021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한 2022년 5,170만 톤보다 증가할 것이나 전방산업(건설,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5,320~5,630만 톤에 미치지 못하는 5,31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방산업별로 살펴보면, 2023년 건설 수주의 경우 최근 고금리로 인한 주택 건설 감소, 정부의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한 토목 부문의 동반 부진에 따른 철근 등 건설용 강재의 수요 부진에 따라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인한 이연 수요 실현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금리 인상 부담에 따른 구매 수요 저하로 자동차용 강판 등 판재류 중심의 수요가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수주 물량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2023년 건조가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조선용 후판을 중심으로 철강 수요의 증가하겠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로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참고문헌

- 강내영·강성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Trade Focus 2021년 1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5.
- 강내영,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 TRADE FOCUS 2023년 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2.13.
- 관계부처합동,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2022. 11. 18.
-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 기상청, “올 여름철, 이른 열대야에 지역 간 강수량 차이 커,” 기상청 보도자료, 2022.9.7.
- _____, “2023년 여름 기후전망,” 2023.2.23.
- 기획재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2022.11.28.
- _____,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출범,” 2022. 12. 29.
- 김기봉, “중국, 코로나 확산세 정점 통과,” 「Brief」, 국제금융센터, 2023.1.26.
- 김기승·조경엽, 「글로벌가치사슬 변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2.11
- 김나을,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Trade Foucs 2022년 1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12.
- 김신주, “인도의 밀과 쌀 수출 규제 조치 배경과 식량 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
- 김희진·오정석,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2022.4.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에틸렌 설비증설 가속화,” 「중국전문가포럼」, 2022.12.13.
- 도원빈,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
- 박소희,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희토류 등 기술 수출 통제로 대응하나,”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93, 2023.2.
- 박우영·박명덕, 「소매전기요금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 산업연구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22.11.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3.1.
- _____, “2022년 10월 가스 수급 동향,” 2023.2.1

- 오정석·김희진, “올겨울 글로벌 에너지위기 도래하나,”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2.9.
- 이동희, “칠레, 지금은 구리 전성시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
- 이윤서, “페루 광물 산업 현주소 및 진출 유의사항,”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1.
- 지용규,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분석,” 전자저널, 2020.7.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23.3.2.
- 한국자동차연구원,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2022.11.21.
- 홍승민, “2023년 국내 철강재 수급 전망,” 「철강보」, 제49권 제1호 통권 565호, 한국철강협회, 2023.1.
- Cox Automotive, “Cox Automotive Forecast: Improved Inventory Levels, Higher Fleet Sales Expected to Support Improving January U.S. Auto Sales,” 2023.1.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Automotive Outlook 2023,” 2023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2023.1.
- Hong. Sheng, et al., “China’s chemical industry: New strategies for a new era,” McKinsey & Company, Mar. 12, 2019.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3: Inflation Peaking amid Low Growth,” 2023.1.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2023.1.31.
- OECD,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3.3.17.
- S&P Global Mobility, “S&P Global Mobility forecasts 83.6M Units in 2023 as Light Vehicle Market Cautiously Recover,” 2022.12.
-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3.1.10.
- Tianlei Huang, “China’s looming property crisis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1.12.
-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2022.11.29.

2023 경제전망 II
- 생산 부문 -
(2023 Economic Outlook II)

발간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디자인·인쇄 (주)명문기획 (tel 02 · 2079 · 9200)

ISBN 979-11-6799-116-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627-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